

황 선 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탐구학습과 협동학습의 혼합모형에 의한  
맞춤법 지도 방안 연구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희 선

탐구학습과 협동학습의 혼합모형에 의한  
맞춤법 지도 방안 연구

황 선 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희 선

# 인 준 서

김희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법 지식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협동학습과 탐구학습의 혼합모형을 통하여 효과적인 맞춤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혼합모형의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하면, 우선 협동학습 모형의 성취과제 분담학습(STAD)의 과정은 ①교사의 수업에 대한 안내 ②모둠활동 ③평가의 단계 ④모듬의 성과에 대한 보상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탐구학습 모형의 과정은 ①학습 목표 확인 ②학습 자료 제시 ③탐구 활동 ④결과의 적용 및 일반화 과정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혼합모형은 협동학습모형의 ②모듬활동의 단계에서 탐구학습 모형의 ③탐구 활동을 접목시키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듬이라는 협동의 환경에서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학습자 스스로의 탐구 활동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것이다.

중학교 3학년 학생 175명을 대상으로 맞춤법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로 바탕으로 맞춤법 학습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어과 내에서 맞춤법 학습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맞춤법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춤법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심 결여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맞춤법 학습이 체계적이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맞춤법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품사의 개념과 문장 성분의 역할 등을 이해한 다음에 학습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교과서의 과정은 체계적

이지 못하여 품사에 관한 학습이 맞춤법보다 나중에 배치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에는 학습자들이 품사 개념을 모르고 있으므로 품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쪽으로 지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사는 띄어 쓴다’라는 것을 지도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학습 현장에서의 맞춤법 교육은 교사 중심의 강의식 교수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 중심의 교수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맞춤법을 비롯한 국어 지식 영역 전반에 걸친 학습 내용을 지루하고 재미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왔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학습한 단원을 바탕으로 설문한 결과임에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항목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맞춤법 학습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맞춤법에 맞는 글쓰기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별도로 맞춤법이라는 단원을 다루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맞춤법은 홀로 다룰 때보다 다른 영역과 함께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맞춤법을 문법의 복잡한 어느 부류로 인식하기보다는 생활 속 글쓰기에서 함께 하는 것으로 친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맞춤법 학습에 품사와 문장 성분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품사와 문장 성분의 학습이 먼저 이루어지면 낱말의 형태와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의 학습에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품사와 문장 성분의 개념을 활용하여 맞춤법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 이것은 탐구학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 획득에 관한 절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수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탐구학습 모형과 ‘상호작용’이라는 협동학습 모형의 혼합모형을 적용한 지도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식을 ‘이론’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고 ‘체득’할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여 탐구활동을 통해 지식을 터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학습자와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탐구활동의 과정을 더욱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b>1.서론</b> -----	1
1.1.연구의 목적 -----	1
1.2.선행 연구의 검토 -----	2
1.3.연구 방법 -----	5
<b>2.탐구학습모형과 협동학습모형의 고찰</b> -----	6
2.1.탐구학습모형 -----	6
2.2.협동학습모형 -----	11
2.3.혼합모형 -----	7
<b>3.한글 맞춤법 지도</b> -----	19
3.1.한글 맞춤법의 구성 -----	19
3.2.현행 교과서의 맞춤법 학습 -----	21
3.3.맞춤법 관련 단원의 구성 및 내용 -----	23
3.3.1.낱말의 형태 -----	26
3.3.2.띄어쓰기 -----	31
3.3.3.문장부호 -----	37
<b>4.맞춤법 능력 실태 분석</b> -----	43
4.1.낱말의 형태 -----	47
4.2.띄어쓰기 -----	52
4.3.문장부호 -----	56
4.4.문제점 -----	59

<b>5.혼합모형에 따른 맞춤법 지도 방안</b> -----	60
5.1.학습지도안 제시 -----	60
5.1.1.낱말의 형태 -----	61
5.1.2.띄어쓰기 -----	65
5.1.3.문장부호 -----	68

<b>6.결론</b> -----	71
-------------------	----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설문지 및 그림 자료)

## 표 차 례

<표1> 협동학습 활동의 유형 -----	15
<표2> 혼합모형의 단계 -----	18
<표3> 한글 맞춤법 규정 -----	19
<표4>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	21
<표5> 맞춤법 단원 지도 계획 -----	24
<표6> 띄어쓰기 규정 -----	31
<표7> 문장부호의 종류 -----	38
<표8> 학습지도안의 예1 -----	63
<표9> 학습지도안의 예2 -----	66
<표10> 학습지도안의 예3 -----	69

## 1.서론

### 1.1.연구의 목적

실생활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춤법은 정확한 표현을 위해 정해 놓은 규칙이다. 쓰고 읽는 것을 비롯한 모든 언어 활동이 의사소통과 문화생활의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법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읽기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일이므로 우리가 정해 놓은 규칙에 맞게 표현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주변의 간판이나, 텔레비전 자막, 작은 메모 등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마주 대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유명 여배우의 ‘부셔 버릴 거야’라는 말이 유행을 한 적이 있다. 이것을 그대로 텔레비전 자막에 보여주는 일이 있었다. 그것이 ‘부수어버리다’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유행어처럼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부쉬 버릴 거야’가 맞는 표현인 것이다. 이처럼 원형을 밝혀 적는 것에 둔감하여 대강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든지 띄어쓰기를 무시하여 쓰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비표준어의 사용이 빈번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다. 통신언어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여 은어의 사용, 소리 나는 대로의 표기, 띄어쓰기 무시를 남발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상 언어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태는 청소년에게 무분별한 언어생활을 조장하지만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 교육은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3학년에 와서야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국어’가 2학년과 3학년에서는 심화선택 과정으로서 ‘문법’이 있을 뿐이다. 선택과목에 설정되어 있는 과목이 원활하게 제 몫을 한다고 자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맞춤법은 언어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교육현장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체계적인 맞춤법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맞춤법 사용능력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법 지식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협동학습과 탐구학습의 혼합모형을 통하여 효과적인 맞춤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학습지도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2. 선행 연구의 검토

맞춤법과 관련한 연구는 맞춤법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와 맞춤법 지도 방안 연구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맞춤법의 실태에 관해 연구한 것과 맞춤법 사용 실태 조사를 토대로 맞춤법 교육 방안을 연구한 내용 등의 두 부류로 요약할 수 있다.

위호정(1990)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법의 오류 실태를 조사하여 그 발생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태 조사와 분석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교정지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류의 원인을 음운론적 오류, 형태 음운론적 오류, 동사론적 오류, 규정적 오류로 분류하였고 맞춤법 지도를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과 관련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경화(1991)는 중학생의 맞춤법 표기 실태 분석을 통한 지도 방법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맞춤법 오류 실태를 분석하여 맞춤법 교정지도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주영(1998)은 기존의 실태 연구 결과와 국어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중학교 맞춤법 지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헌 연구 방법으로 바람직한 맞춤법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암기 학습을 통한 맞춤법 지도보다 맞춤법을 여러 단원에 걸친 국어의 이해 단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유정(2000)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법 인지 실태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맞춤법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태 조사를 통해 발음과 일치하는 단어들은 인지도가 높았으나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나 발음의 표기에 있어서는 인지도가 낮음을 밝혀 내었다.

강애경(2002)은 한글 맞춤법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한글 맞춤법의 수준별 지도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법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지도 방안을 실험에 옮겨 결과를 보여주었다.

정혜정(2003)은 맞춤법 지도를 규범과 적용에 관한 것으로 논의하였다. 탐구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맞춤법 지도와 관련된 수업을 설계하여 국어 지식 영역의 독자적인 교수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수진(2004)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글 맞춤법 실태를 조사하여 학생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들을 중심으로 중학교 3학년의 맞춤법 단원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은희(2005)는 중학교 맞춤법 단원의 분석을 통해 현재 맞춤법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효과적인 맞춤법 지도를 모색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맞춤법 실태에 관한 연구는 실태 조사를 보여주는 것에 그친다든가 구체적인 지도 방안까지 제시해 보았다 하더라도 실험적인 교수모형에 대한 대안적 제시가 미비한 아쉬움이 남는다.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맞춤법 지도 방안을 모색한다고 해도 원론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인 교수모형의 적용 시도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좀 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맞춤법 지도 방안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지도 방안 연구에 적용할 교수 모형은 탐구학습모형과 협동학습모형의 혼합모형이다. 탐구학습모형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김광해(1992)는 탐구학습모형의 문제에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sup>1)</sup> 그는 국어 지식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탐구 학습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실제적인 수업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룹 활동을 통한 탐구 학습을 언급하였으나 협동 학습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민현식(1993)은 학교 국어 지식 교육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통일 문법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다.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문법 지식이나 체계를 먼저 제시하고 난 뒤 해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언어 자료를 먼저 수집하여 제시하고 귀납적 분석을 거쳐 통일 문법 체계의 제시의 과정을 거치는 탐구 학습 모형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탐구학습 모형과 협동학습 모형은 각각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계한 혼합모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박선영(2002)은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서 탐

---

1) 김광해(1997), 국어지식교육론, 서울대출판부.

구학습과 협동학습의 혼합모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문법교육이 지식전달에 치중하였다는 것을 반성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탐구학습을 제안하였다. 또한 문제해결모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것으로 소집단활동에 의한 협동학습을 강조하였다. 혼합모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나 실제로 교육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다루고 있지 못한 점이 있다.

김효진(2004)은 중학교 3학년 국어지식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서 협동학습과 탐구학습의 혼합모형을 통한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연구하였다. 두 모형을 연계한 혼합 모형을 국어 지식 영역의 교수·학습에 적용시켜 국어 지식 영역을 보다 흥미 있고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제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국어 지식 영역 전반을 다루고 있으나 맞춤법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탐구학습과 협동학습의 혼합모형을 이용하여 맞춤법 지도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 1.3.연구 방법

2장에서는 탐구학습모형과 협동학습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할 것이다. 이 고찰은 탐구학습과 협동학습의 혼합모형에 대한 실제 적용 방법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현행 한글 맞춤법 지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한글 맞춤법의 구성을 살펴보고 현행 교과서의 맞춤법 학습에 대하여 살펴보고, 중학교 3학년 1학기 생활국어 2단원의 내용을 낱말의 형태, 띄어쓰기, 문장부호의 순서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실태 조사를 다루기로 한다. 실태 조사를 위해 인천시에

소개한 중학교 3학년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실태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학습지도 방안 모색할 것이다. 설문 문항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서 맞춤법 관련 단원 내용 분석의 순서와 같이 낱말의 형태 25문항, 띄어쓰기 20문항, 문장부호 6문항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국어 어문 규정집에 제시된 예들 가운데 선정하였다. 여기서 실시한 실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세부 지도안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5장에서는 실태 조사의 결과에 따라 혼합모형을 적용하여 맞춤법 지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 중 맞춤법과 관련된 단원인 중학교 3학년 1학기 생활국어 2단원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의 학습지도안을 제시할 것이다. 학습지도안은 탐구학습과 협동학습의 혼합모형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순서도 앞서 말한 것처럼 낱말의 형태, 띄어쓰기, 문장부호의 순으로 제시될 것이다.

## 2. 탐구학습모형과 협동학습모형의 고찰

### 2.1. 탐구학습모형

정보처리 모형 집단에 속하는 탐구 모형에서는 인간에 대해 정보가 처리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지적 역량이 계발되고, 창의력이 표현되고 향상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므로 그 탐구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둔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은 지식의 핵심을 가르쳐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면에서 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지식을 무조건 받아들

임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구성해 낼 줄 아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탐구학습이 연구되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이론 가운데 모순이 있다면 기존의 이론을 반성하여 현실 상황에 적합한 체계를 학습자 스스로 정립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의 양을 학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식 자체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발견해 낼 줄 아는 능력의 배양이 중요하다. 즉 탐구학습은 지식 그 자체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 지식을 발견해 내는 과정을 학습자가 직접 체험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 스스로가 탐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는 학생들이 탐구 영역 내에 있는 개념적 혹은 방법론적인 문제를 확인하도록 돕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계하고, 조사하고자 하는 영역들에 직면하여 실제적인 탐구 문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존 듀이(John Dewey)에 의하면 탐구란 ‘어떤 신념, 혹은 상정되어 있는 어떤 지식 형태를, 이 신념 혹은 지식 형태를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근거에 비추어 적극적이며 끈기 있고 세심하게 고찰하는 것, 또는 이 신념 혹은 지식 형태가 지향하는 여러 결론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김광혜(1997)는 탐구학습에 대해 경험 과정을 통하여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 전략이라고 하였다. 어떤 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내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습 방법인 것이다. 그래서 지식 자체보다 지식을 얻는 과정을 강조한다. 즉 반성적 힘을 기르는 것이 탐구학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탐구학습모형과 관련해 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사용지도서에 김

광해(1997)의 문제해결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국어 지식 교육을 탐구 학습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지식’, ‘태도’, ‘과정’을 탐구학습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탐구과정의 절차는 ‘①탐구목표(문제)의 정의, ②가설 설정, ③가설 검증, ④결론 도출, ⑤ 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이다.<sup>2)</sup>

#### ①탐구목표(문제)의 정의

탐구는 어떤 것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한다. 이 어떤 것이란 질문에 대한 해답일 수도 있고 문제의 해결일 수도 있으며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불완전한 결론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일 수도 있다. 탐구 과정의 제 1차적인 단계는 목표를 처리하기 쉬운 의미로 정의하고 한계를 설정하여 명확히 하는 일이다. 무엇을 탐구하려는 것인지 정확한 개념을 가지지 못하면 성공적인 탐구를 수행할 수 없다.

#### ②가설 설정

가설은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이다. 대안이 될 만한 해결책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목표 설정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는데 통상 목표가 명확히 된 상태라면 가설도 이미 어느 정도는 설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설을 세우거나 결론을 추정하는 일은 탐구자의 기존 지식과 많은 연관 관계를 가진다. 또한 이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탐구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③가설 검증

일단 가설이 형성되면 적절한 정보나 증거들이 가설을 얼마나 잘 뒷

---

2) 김광해(1997)는 Barry K. Beyer의 사회과 탐구학습 이론에 제시된 탐구 학습 과정 참조하였다고 함.

받침해 주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목표에 따라 이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자료의 수집, 자료 평가, 자료의 분석 등을 위한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④결론 도출

결론은 가설을 검증하여 내린 결정 사항이다. 이 단계에서 탐구자는 증거를 중심으로 가설의 타당성을 살피게 된다. 만약 증거가 처음의 가설을 뒷받침한다면 그것의 재진술이 곧바로 결론이 된다. 그러나 가설이 부분적으로만 옳다고 판단되었다면 이 때의 결론이란 가설을 수정하여 새로운 상황에 통합시키는 일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 증거가 가설과 상치된다면 이는 자신이 세운 가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이를 추가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검증해야 한다. 가설을 세우고 결론을 내리는 일은 탐구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 ⑤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여 얻어낸 결론이 새로운 상황의 자료에도 적용되며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다. 그것이 가능하면 탐구 과정이 성공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새로운 자료에 적용시켜 본 결과 결론이 수정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과정은 새로운 문제로 돌아가서 앞의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완성된 개념이란 통상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적용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일반화될 수 있다면 그 탐구학습의 목표는 달성된 것이다.

탐구 학습 모형은 첫째, 학습자에게 열린 마음가짐을 길러 줄 수 있다는 점, 둘째, 탐구의 판단을 유보해서 대안들 간의 균형을 찾는 능력을 길러 주고 공동체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협력의 정신과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점, 셋째,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 넷째, 적절한 교수 자료를 가지고 모형을 계속 사용해 1년 또는 그 이상에 걸쳐서 수행되어 온 전체 교육과정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협력적이고 열정적 자세가 필요하며 지식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탐구자들의 공동체의 기본 규칙에 대한 숙지가 사전에 있어야만 탐구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자가 가진 지식의 잠정적이고 도발적인 성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처음 과학적 탐구 학습을 시행 할 때는 잠정적 지식에 대해 미숙하게 대처 할 가능성이 있다. 교사는 탐구 과정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탐구 과정을 성찰하도록 이끌면서 탐구심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sup>3)</sup>

살펴본 바와 같이 탐구학습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학습자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둘째, 탐구학습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일정한 특성을 찾아내는 것이므로 사고의 논리성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탐구 학습은 탐구거리와 증거자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탐구학습은 교사의 일방적 수업을 지양하고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일정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자료로부터 가설을 정하고 그것을 확인 및 검증하는 탐구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

3) 박인우 외 공역(2005), Bruce Joyce · Marsha Weil · Emily Calhoun, 교수모형, 아카데미프레스

## 2.2. 협동학습모형

협동학습모형은 사회적 모형 집단에 속한다. 사회적 모형 집단은 파트너 관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역할 놀이 모형이 여기에 속하는 것도 사회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협동적 환경에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한다고 본다. 그리고 협동학습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매우 빠른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에 성공적인 학생들은 본질적으로 협동적이어서 협동적 환경에서도 이득을 얻게 된다고 보고 있다.

존 듀이(John Dewey 1910)는 민주적 과정을 적용한 모형을 개발하려는 노력으로 전체 학교가 민주주의의 축소물로 조직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Thelen(1960)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는 개념으로 시작하였다. 사회적 존재는 지구상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없이 행동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회 질서의 협상과 재협상이 사회적 과정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급은 사회적 질서와 학급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수모형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협상 방식을 복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협상을 통해 학문적 지식을 공부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게 된다. 교사가 주는 과제는 학습자에게 탐구적 성향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급은 문제를 공략하고 문제 해결을 통해 지식을 얻는다. 학급은 사회적 집단으로 보다 효과적인 민주적 축소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효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성격을 발달시키고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장시간에 걸친 사회적 상호작용은 많은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 우리의 태도, 가치,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협동학습은 우리 내부의 깊은 생각과

느낌을 일깨워 주고 통합된 자아감을 획득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협동학습의 요소로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교사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②학습자 간 상호작용, ③교사가 선택할 과제 분담과 자료, ④교사가 학습자에게 부여할 역할기대와 책임 등이 그것이다.<sup>4)</sup>

#### ①교사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협동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목적은 독립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것이다. 협동교실에서의 교사와 학습자 간의 의사교환은 학습자 스스로 교과서와 독립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는 방식은 자기 주도적 학습과 차이가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경우에 상호작용이 주로 일대일이며 학생 개개인의 응답기회 최대영역에 맞추어지지만 협동 학습에서 교사의 목표는 모둠이 보다 더 자기 반성적이 되고, 모둠이 해야 할 일을 잘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의 목적을 가진 모둠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한 평균적 응답기회 최대영역에 맞추어야 한다.

#### ②학습자 간 상호작용

협동학습 모둠 속의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강도가 높고 지속적이다. 협동학습 모둠 내에서 학생들은 서로 간의 학습에 책임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강화, 피드백, 칭찬 등과 같은 것이 동료 학생에게서 나온다. 보통 4~6명이 모둠을 이루어<sup>5)</sup> 공통의 목표를 향해 신체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동안 서로 도

4) 박승배 외 공역(2006), Gary D. Borich, 효과적인 교수법, 아카데미프레스.

5) 협동학습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모둠 활동이 적절하다. 이 때 모둠의 크기는 중요하다. 모둠의 크기는 모둠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와 합의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각 모둠 내에서 자료 공유시의 효율성, 최종 결과물 산출에 걸리는 시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와주고 격려한다. 이것은 협동학습의 근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모둠 구성원을 정할 때는 각 모둠에 다양한 학생들이 섞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다양성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부터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정보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모둠의 협동심을 증가시킨다. 또한 실제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게 되면 모둠의 과제를 성공에 필요한 관심과 자연스런 분화, 협동심, 대화의 필요성을 제공할 수 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함께 일하는 동료로부터의 압력은 수동적이고 반항적인 학생들도 서로 협력하도록 하기 때문에 모둠 편성을 할 때 다양한 학생들이 섞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③교사가 선택할 과제 분담과 자료

학습할 과제와 협동학습 활동구조를 구성하는 자료들은 사전에 결정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과제는 마쳐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고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다른 학생들의 작업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협동학습의 이러한 특징은 학습자들이 서로 의견과 자료를 교환하게 한다. 과제와 보조 자료의 선택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협동학습은 과제 분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어떤 큰 과제를 몇 개의 작은 과제로 나누고 이것을 각 모둠이 맡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각 모둠은 자신들이 분담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모둠보다 좋은 생각을 내기 위해 노력하며 경쟁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학습의 목표는 최종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경쟁이 아닌 경쟁이 유발하는 모둠내의 협

---

이다. 따라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모둠 크기는 4~6명이다(E. Cohen, 1994; Johnson, Johnson, & Holubec, 1994). 우리나라의 중학교 한 학급의 경우 35명 내외가 되므로 5~6개의 모둠으로 만들 수 있다.

동에 있다.

#### ④교사가 학습자에게 부여할 역할기대와 책임

협동학습 활동을 위해 적절한 역할의 배정도 중요하다. 모둠에 속한 학습자들은 모둠 내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모둠 리더, 연구자, 기록자, 요약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sup>6)</sup>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역할기대와 적절한 과제 분담을 하여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야만 협동학습이 느슨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수동적 참관자와 방관자들이 생겨 협동학습 활동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다.

협동학습에서 학습자들이 맡은 과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강화와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점수를 이용하여 모둠과 모둠에 기여한 개인을 평가해 볼 수 있다. 퀴즈를 이용하여

---

6) 모둠 구성원들의 역할 배정에 있어서 교사는 각 모둠의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여 각 모둠이나 구성원들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 교사가 구성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ohnson & Johnson, 1996) ①요약자: 모둠 구성원들이 내린 결론을 요약하고, 또한 학급 전체 앞에서 자기 모둠의 활동 결과를 발표할 때에 그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②확인자: 자기 모둠에서 내린 결론이나 어떤 사실이 권위 있는 교과서나 기타 참고 자료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다. 확인자의 역할은 자신의 모둠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거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다른 모둠에 의해 자신의 모둠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③조사자: 참고문헌을 읽고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할 때 이를 찾는 사람이다. 조사자와 확인자의 차이점은 조사자는 과제를 마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정보를 모둠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확인자는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 또는 끝난 후에 그 과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일을 한다는 데에 있다. ④실행자: 과제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라면 어느 것이든지 다 구해오는 사람이다. 실행자에게는 창의성, 민첩성, 심지어 다른 모둠에서도 필요로 하는 자원을 먼저 획득하기 위해서 약간의 교활함까지 요구된다. ⑤기록자: 모둠에서 만든 주된 결과물을 글로 기록하는 사람이다. 기록자는 각 구성원들에게 각자가 수행한 부분의 결론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취합한 다음, 이를 다시 일관성 있게 종합할 수 있다. ⑥후원자: 성격이 느긋하고 낙천적인 사람이 맡는 역할로서, 주 임무는 맡은 임무를 끝마친 동료들 칭찬하고 실망에 빠진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다. 후원자는 또한 모둠 구성원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그 모둠의 과제 진행 상황을 중간 중간 그래프로 그려서 구성원들에게 보여 주면서 조원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원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⑦관찰자/문제 해결자: 학급 전체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모둠활동 과정에서 기록하는 사람이다. 한 개인이나 모둠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반장이나 교사에게 그 문제를 보고하는 역할을 겸한다. 여기에 제시한 역할들은 학급 실정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꽃 이름을 이용하여 정하거나 유명인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다. 학급 내에서 역할에 대한 내용이 약속된다면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너스 점수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상을 주거나 다음 협동학습 과제 해결을 할 때 역할에 대한 선택을 먼저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등의 보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모둠별 유대 정도를 평가하여 강화 또는 특권을 줄 수 있다.

모둠 중심적 협동 학습 활동에는 ①성취과제 분담학습(Student Teams - Achievement Division: STAD), ②팀 경쟁학습(Teams-Games-Tournament: TGT), ③직소학습(Jigsaw II), ④팀 보조 개별학습(Team-Assisted Individualization: TAI) 등이 있다. 이 네 가지 협동학습 활동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협동학습 활동의 유형

성취과제 분담학습	팀 경쟁학습	직소II	팀 보조 개별학습
1.교사가 강의나 토론을 통해 내용을 전달한다. (수업에 대한 안내)	1.교사가 강의나 토론을 통해 내용을 전달한다.	1.학생들은 교과서의 일정 부분을 읽고 독특한 과제를 부여 받는다.	1.공부할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2.각 모둠은 문제지의 질문이나 문제를 공부한다. (모둠 활동)	2.각 모둠은 문제지의 질문이나 문제를 공부한다.	2.동일한 주제를 공부한 학생들끼리 문가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해쳐 모인다.	2.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속도에 따라 배정받은 내용을 공부한다.
3.교사는 학생들이 공부한 자료에서 퀴즈를 낸다. (평가의 단계)	3.각 모둠은 점수를 따기 위해 학문적인 게임을 한다.	3.학생들은 자신의 소속 팀으로 돌아가 모둠 동료들을 가르친다.	3.모둠 동료들끼리 정답을 확인 한다.
4.교사는 모둠의 평균 점수와 각 개인별 향상 정도를 결정한다. (모둠의 성과에 대한 보상)	4.교사는 4주 동안 각 모둠별 점수를 기록하여 최우수 모둠과 개인을 결정한다.	4.학생들은 공부한 내용에 대한 퀴즈를 푼다.	4.퀴즈 점수를 평균하고 끝마친 단원을 세어서 모둠 점수를 계산한다.
		5.모둠의 점수와 개인별 점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개인별 퀴즈가 주어진다.	

본고에서는 위의 네 가지 모둠 중심적 협동학습 활동 가운데 성취과제 분담학습(STAD)을 적용한 혼합모형을 다루게 될 것이므로 성취과제 분담학습에 관해 기술해 보도록 한다.

성취과제 분담학습은 먼저 교사가 학습자들을 4~6명의 모둠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강의나 토론을 통해 새 단원을 소개하고 강의나 토론의 핵심을 학생들이 복습할 수 있는 문제지나 질문을 제시하여 성취과제 분담학습을 시작한다. 교사의 설명이 끝나면 각 모둠 구성원들은 문제지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혼동되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한다. 교사는 모둠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모둠별로 한 사람씩 선정하여 문제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다른 학습자의 답을 확인하게 하는 역할을 준다. 충분히 연습할 시간을 주고, 개인별로 퀴즈를 내 줄 때는 서로 도와줄 수 없게 한다. 이것으로 개인별 점수를 내고, 모둠의 성적을 낼 수 있다. 교사는 필요한 경우에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할 수 있다. 성취과제 분담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동료들에 대해 일종의 동지의식을 느끼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추구하게 되며,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동기도 발전시킬 수 있다.

협동학습의 성공은 교사 개인의 창의성과 노력에 많이 의존한다. 교사는 교과와 내용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협동학습 경험을 만드는 일을 해야만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심,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교실 환경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성취과제 분담학습과 앞서 다루었던 탐구학습 모형의 혼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안되는 것이다.

### 2.3. 혼합모형

여기서 다루게 될 혼합 모형은 탐구 모형과 협동 모형을 바탕으로 한다. 탐구 학습은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스스로가 탐구 과정을 통하여 지식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혼합모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탐구 학습을 기본으로 한다. 학습 내용에 관한 모든 지식 습득과 내용 인지의 과정은 탐구 학습 모형에 따른다. 학습자 스스로의 탐구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탐구 학습을 하기 위한 환경적인 면에서 협동학습 모형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즉 협동학습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학습자의 탐구 과정을 돕기 위해 교사와 학습자 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과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적용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성취과제 분담학습은 구체적인 모둠 중심적 협동학습의 방법으로 적용될 것이다.

혼합모형의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하면, 우선 협동학습 모형의 성취과제 분담학습(STAD)의 과정은 ①교사의 수업에 대한 안내, ②모둠활동, ③평가의 단계, ④모듬의 성과에 대한 보상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탐구학습 모형의 과정은 ①학습 목표 확인, ②학습 자료 제시, ③탐구 활동, ④결과의 적용 및 일반화 과정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혼합모형은 협동학습모형의 ②모듬활동의 단계에서 탐구학습 모형의 ③탐구 활동을 접목시키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듬이라는 협동의 환경에서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학습자 스스로의 탐구 활동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것이다.

혼합모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표2> 혼합모형의 단계

혼합모형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혼합모형의 내용	교사가 강의나 토론을 통해 내용을 전달한다. (수업에 대한 안내)	각 모듈은 문제지의 질문이나 문제를 공부한다. (모듈 활동) + 탐구활동(자료 분석 및 결론 도출)	교사는 학생들이 공부한 자료에서 퀴즈를 낸다. (평가의 단계)	교사는 모듈의 평균 점수와 각 개인별 향상 정도를 결정한다. (모듈의 성과에 대한 보상)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학습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모듈을 적절하게 나누고 각 구성원에게 역할을 정해 주어야 한다. 역할을 정해 주면 모듈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감을 주게 되어 원활한 모듈활동을 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모듈활동이 시작되는데 교사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문제지를 제시하여 탐구 활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이때 학생들은 자료를 분석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탐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다음 3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탐구활동을 통해 얻은 것을 평가하게 된다. 4단계에서는 모듈별로 평가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한다. 모듈별 학습에서 보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탐구활동 및 모듈활동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적절한 보상은 학생들의 탐구 의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습자의 능동적인 탐구 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주제와 관련된 많은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자료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실마리를 학습자 스스로 발견해 내는 데 안내자의 역할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자료를 통해 어떤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할 때에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3. 한글 맞춤법 지도

#### 3.1. 한글 맞춤법의 구성

우리나라의 어문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한글 맞춤법’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맞춤법’은 1933년 조선어학회가 마련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현재의 맞춤법 규정은 1988년 1월 문교부 고시 제88-1호에 의한 것이다. 그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3> 한글 맞춤법 규정

일러두기
제1장 총칙
제2장 자모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제2절 구개음화
제3절 ‘ㄷ’소리 받침

제4절	모음
제5절	두음법칙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1절	체언과 조사
제2절	어간과 어미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
제5절	준말
제5장	띄어쓰기
제1절	조사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3절	보조 용언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6장	그 밖의 것
[부록]	문장 부호

한글 맞춤법은 6장의 본문과 문장부호를 다루고 있는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과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자모에 관한 규정이고 제3장은 소리에 관한 것으로 된소리, 구개음화, ‘ㄷ’소리 받침, 모음, 두음법칙 등을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형태에 관한 것으로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 준말 등의 규정을 다루고 있다. 즉 형태소를 단위로 형태소들 간의 결합 관계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은 띄어쓰기로 조사,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보조

용언,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등의 띄어쓰기를 항목별로 다루고 있다. 제6장은 그 밖의 것으로 통일된 체계 내에서 다루기 힘든 개별 형태나 특수한 발음과 관련되는 표기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록은 다양한 문장 부호의 쓰임에 대한 규정이다.

### 3.2. 현행 교과서의 맞춤법 학습

현행 제7차 교육과정 내에서의 맞춤법 학습은 국어 지식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국어 지식 영역의 학년별 내용은 지식의 난이도와 순차성, 언어 구조의 복잡성, 동일 학년 내에서 다른 영역의 교육 내용과의 관련성을 중시하고 있다.

국어 지식 영역 내에서의 맞춤법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4>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내 용		
	<국어의 본질>	<국어의 이해와 탐구>	<국어에 대한 태도>
국어지식	언어의 특성	음운	동기
	국어의 특질	낱말	흥미
	국어의 변천	어휘	습관
		문장	가치
		의미	
		담화	
· 규범과 적용			
표준어와 표준 발음	맞춤법	문법	

맞춤법과 관련된 교육 내용으로는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와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이다.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의 내용은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 알기와 맞춤법에 맞는 국어를 사용하는 방법 알기와 우리말의 맞춤법 알기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맞춤법에 맞는 국어 사용하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의 기본 학습으로 맞춤법에 맞게 한 편의 글을 써 보도록 하여 맞춤법을 활용하여 글을 쓰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학습한다. 심화학습으로 다른 사람의 글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기를 통하여 맞춤법에 대한 지식을 실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는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알기와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는 방법 알기,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는 필요성 알기,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 알기 등을 바탕으로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맞춤법에 맞는 국어 생활을 위하여 주변의 언어생활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사용 실태를 수집하고 바르게 고쳐보도록 하며, 맞춤법에 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한다. 여기서의 기본 학습으로 맞춤법에 맞지 않는 글을 써서 부끄러웠던 경험을 말해 맞춤법에 맞는 국어사용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심화 학습으로 맞춤법에 맞게 글을 써야 하는 이유를 말해본다. 여기서의 기본 학습의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법에 맞는 글을 쓰는 이유를 확고히 인식하여 맞춤법에 따른 국어사용을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또한 국어 맞춤법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토의하는 활동을 통하여 맞춤법에 대한 특징을 배우도록 한다.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알게 함으로써 맞춤법에 대한 바른 실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의 맞춤법 학습은 학습자가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국어사용의 실재를 관련시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3.3. 맞춤법 관련 단원의 구성 및 내용

맞춤법과 관련된 단원을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생활국어 2단원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한글 맞춤법”의 제5항 띄어쓰기와 부록의 문장부호와 낱말의 형태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낱말의 형태에 관한 것은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그리고 ‘자모’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자모’에 관한 것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6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중학교 2학년 1학기에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원 설정의 이유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맞춤법은 글을 쓸 때에 글쓴이와 읽는 이 사이의 공통의 약속이다. 맞춤법에 맞게 쓰면, 글쓴이는 읽는 이에게 자신의 생각을 좀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맞춤법은 쓰고 읽는 언어생활의 과정에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의사 전달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교재의 측면이다. 맞춤법의 기능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생활 속에서 맞춤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모둠별로 조사하여 잘못된 점을 찾아 맞춤법에 맞게 생활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학습 심리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단원을 배움으로써 학생들은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고,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는 방법을 연습하여 일상생활에서 바르고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넷째 학습 경험 면에서 살펴보면 이 단원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 내용은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효과적으로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이다. 이 내용은 학습자가 맞춤법에 맞도록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대단원의 목표는 “맞춤법에 맞게 글을 써야 하는 까닭을 안다.”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로 정하고 있고 본시 학습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가. 맞춤법의 기능을 알 수 있다.
- 나. 맞춤법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 다. 맞춤법에 맞는 글쓰기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으로는 첫째, 맞춤법 학습의 필요성을 충분히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잘못된 간판,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험 등 다양한 예를 제시하여 맞춤법 학습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둘째, ‘한글 맞춤법 규정’을 강조하여 단편적인 지식이나 사실을 주입하는 것을 피한다. 즉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조사하고 느껴 본 것을 수업의 제재로 한다. 이 단원의 지도가 맞춤법 규정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여 단편적인 국어 지식만 주입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데 유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단원의 지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5> 맞춤법 단원 지도 계획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학 습 내 용	소요시간
2.바 르 고 정		단원의 길잡이  (1)	○단원 표지와 연계하여 학습 목표 알기 ○‘단원의 길잡이’ 읽기 ○맞춤법이 잘못된 글을 읽으며 맞춤법 학습의 필요성 알기 ○‘단원의 길잡이’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 대단원의 학습 방법 이해하기	1차시 45분 (본시)

확 하 게 쓰 기	맞춤법의 기능	○나의 맞춤법 실력 점검하기	
	(1) 맞춤법의 기능	○띄어쓰기의 필요성 이해하기 ○문장부호의 쓰임 알기	2차시 45분 (본시)
	(2) 맞춤법에 맞게 쓰기	○문장 부호에 대하여 공부하기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 찾아 고치기	3차시 45분 (본시)
		○맞춤법에 유의하여 받아쓰기	4차시 45분 (본시)
		○우리 주위의 맞춤법 실태 조사하기	5차시 45분 (본시)
	보충 심화	○자신의 학습 정도 점검하기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고치기 ○문장 부호의 쓰임 공부하기 ○맞춤법에 맞게 원고지에 쓰기 ○맞춤법에 대한 질문에 답해 보기	6차시 45분 (본시)
	단원 정리	○단원 학습 내용과 활동 정리하기	

단원의 지도 계획은 총 6차시로 설정되어 있다. 대단원명은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이며, 소단원은 (1)맞춤법의 기능, (2)맞춤법에 맞게 쓰기이다. 소단원 (1)맞춤법의 기능에서는 자신의 맞춤법 실력을 점검해보고 낱말의 형태, 띄어쓰기와 문장부호의 쓰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한다. 즉 맞춤법이 필요한 까닭을 학습자 스스로 알도록 하는 것이다. 소단원 (2)맞춤법에 맞게 쓰기에서는 예문의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고쳐보기와 맞춤법에 유의하며 받아쓰기를 하는 것과 주변의 맞춤법 실태를 조사하는 등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활동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보충·심화 학습에서는 맞춤법에 대한 학습의 복습과정이 진행된다. 학습자의 학습 정도를 파악하여 수준에 맞는 활동이 선택된다.

그러면 낱말의 형태와 띄어쓰기, 문장부호의 순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3.3.1. 낱말의 형태

한글 맞춤법의 제3장 ‘소리에 관한 것’과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6장 ‘그 밖의 것’ 등이 낱말의 형태에 해당된다. 그러나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단원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단원의 길잡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단원의 길잡이

- ①오뚜기가 오뚝 섰다./오뚝이가 오뚝 섰다.
- ②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만나요?/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나요?
- ③살믄 달걀/삶은 달걀

①의 경우에는 ‘오뚝하다’라는 어근에 접사 ‘-이’가 붙은 형태의 낱말이다. 따라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②의 경우, 한글 맞춤법의 제1항인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이것은 소리대로 적는 표음주의 방식을 따르는 것과 어법에 맞게 적는 원칙을 적용한 예문인 것이다. 즉 표음주의 방식이 어떤 때 적용되는 것인지와 어법에 맞게 적는 원칙이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라 할 수 있다. ③의 예문도 소리대로 적어야 하는지 어법에 맞게 적는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낱말의 형태와 관련한 맞춤법 학습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다양하게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소단원 (1)맞춤법의 기능에 제시된 낱말의 형태와 관련한 예들이다.

- (1) 맞춤법의 기능
- ①있슴/있음    ②일찌기/일찍이    ③내가 만들어 줄께/내가 만들어 줄게  
 ④담배를 앓 피움/담배를 안 피움  
 ⑤얼굴에 들어난 광대뼈/얼굴에 드러난 광대뼈  
 ⑥마춤 전문/맞춤 전문    ⑦어름/얼음    ⑧떡볶기/떡볶이  
 ⑨말끔/맑음    ⑩먹을려고/먹으려고    ⑪드러갔다/들어갔다    ⑫써러져/떨어져  
 ⑬그러케/그렇게    ⑭사라/살아    ⑮찌거/찍어    ⑯다끄며/땀으며    ⑰가이/가히

①은 ‘있-’의 어간에 ‘-음/口’이 붙어 명사가 되는 경우나 ②와 같이 ‘-이’나 ‘-히’가 붙어 부사가 되는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③의 경우 ‘-(으)르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예사소리로 적어야 한다. 갈수록 발음의 경음화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표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④에서 ‘안’은 ‘아니’의 준말이다.

‘않-’은 ‘않다’의 어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않-’은 홀로 쓰일 수 없다. 어미를 동반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긴 부정문 ‘피우지 않다’는 성립하나 짧은 부정문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짧은 부정문에서는 ‘아니’의 준말 ‘안’을 써야 옳다. ⑤에서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해서 적되, 두 개의 용언이 하나의 용언을 이룰 경우,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는 것은 원형을 밝혀 적으나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즉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고 있는 것이다. ⑥은 ‘마추-’와 ‘맞추-’의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말이다. ‘마추-’는 ‘주문하다’이고 ‘맞추-’는 ‘맞도록 하다’의 의미를 가진 말이었으나 혼란을 막기 위해 ‘맞추-’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맞춤 전문’이 맞는 표현이다. ⑦은 어간에 파생 접미사 ‘-음/-口’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경우이다. 이 때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⑧의 경우에는 명사 ‘떡’에 어간 ‘볶-’이 붙고 접미사 ‘-이’가 붙은 형태이다. 이 경우에도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한다. ⑨의 경우 어간 ‘맑-’에 접미사 ‘-음’이 붙어서 명사화 하였다. 그러므로 ‘맑음’으로 적어야 한다. ⑩은 어간 ‘떡-’에 연결어미 ‘-으려고’가 붙은 경우이다. ⑪은 ‘들다’와 ‘가다’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⑫은 어간 ‘썰-’에 어미가 붙은 것이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쓰지 말고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⑬의 경우에도 발음대로 적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⑭에서도 어간 ‘살-’에 어미가 붙은 경우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⑮도 마찬가지다. 어간 ‘찍-’에 어미가 붙은 경우이므로 어법에 맞도록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⑯에서도 어간 ‘뒹-’에 어미가 붙었으므로 어법에 맞게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⑰의 경우에는 부사의 끝 음절이 ‘이’와 ‘히’로 발음되거나 ‘히’로만 나는 것은 ‘-히’로 적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다음은 소단원 (2)맞춤법에 맞게 쓰기에 제시된 낱말의 형태와 관련한 예들이다.

- (2)맞춤법에 맞게 쓰기
- ①안코/얹고                    ②칠었다/치렀다    ③8만 리쯤 돼지/되지
  - ④청년 세대에 임무/청년 세대의 임무
  - ⑤도라/돌아                    ⑥있드시/있듯이
  - ⑦후날/훗날                    ⑧처년 기념물 흑두르미/천연 기념물 흑두루미
  - ⑨백분률/백분율              ⑩그만 놓히고 말았다/그만 놓치고 말았다
  - ⑪국민의 심부름꾼이다/국민의 심부름꾼이다.
  - ⑫뒷맛이 영 썩쓸하다/썩쓸하다
  - ⑬깍뚜기/깍뚜기
  - ⑭깨끗히/깨끗이

①의 경우에 어간 ‘얹-’에 어미가 붙은 형태로 발음대로 적으면 안 된다. ②의 경우 ‘치르다’가 원형이므로 ‘치렀다’가 올바른 표기이다. ③에서는 ‘돼’와 ‘되-’의 의미 차이를 알아야 한다. 즉 ‘돼’는 ‘되어’의 준말이다. ‘되-’는 어간이므로 어미와 연결해야 한다. 따라서 ‘돼지’가 아닌 ‘되지’가 옳은 것이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돼’ 대신에 ‘되어’를 넣어서 말이 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 ④에서 ‘의’와 ‘에’의 혼동이 있는데, ‘의’는 관형격 조사이고, ‘에’는 부사격 조사이다. 따라서 ‘임무’를 수식하는 관형어를 만드는 조사가 필요하다. ⑤는 어간 ‘돌-’에 어미가 붙은 경우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⑥의 경우 ‘-듯이’는 용언 어간에 붙어 ‘어간이 뜻하는 내용과 같게’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⑦의 경우 순 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는 앞

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사이시옷을 붙여 쓴다. 따라서 ‘훗날’로 적어야 한다. ⑧은 발음대로 적으면 안 되고 그 형태를 밝혀 적는다. 한자음 ‘랴, 러,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두음법칙이 적용되어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어야 한다.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면 본래대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는 ‘렬, 룰’의 경우는 ‘열, 율’로 적어야 한다. ⑨의 경우가 그러하다. ‘룰’의 앞 단어의 받침이 ‘ㄴ’이므로 ‘율’로 적어야 한다. ⑩의 경우 용언 ‘놓다’에 접사 ‘치’가 들어간 경우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⑪의 경우 된소리로 적는 접미사에 속한다. 된소리로 적는 접미사에는 ‘-꾼’, ‘-깎’, ‘-때기’, ‘-빼기’, ‘-꿈치’, ‘-쩍다’ 등이 있다. ⑫의 경우는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이므로 같은 글자로 적어야 한다. 즉 ‘쑥쑥하다’가 올바른 표기이다. ⑬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는 안 된다. ⑭의 경우 앞서 살펴본 ‘가히’의 내용과 같다. 다시 말해 부사의 끝음절이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어야 하므로 ‘깨끗이’가 맞는 표기이다. ‘가히’와 같이 ‘히’로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어야 한다.

다음은 보충·심화 학습에 제시된 낱말의 형태와 관련한 예들이다.

<u>보충·심화</u>
①너머/넘어
②붙이다/부치다
③곶배기/곶빼기

위에 제시된 예들은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한다. ‘너머’는 ‘높거나 넓은 것의 저쪽’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명사이다. ‘넘어’는 ‘수량이나 정도가

한계를 지나다'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이다. 그러나 발음상의 문제로 혼동이 생긴다. 따라서 두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여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붙이다'와 '부치다'의 경우에도 발음상 혼동이 일어나는 단어이다. '붙이다'는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치다'는 '보내다'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의미를 파악하여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의 '-빼기'는 앞에 오는 말이 분석 가능할 때 사용한다. 만약 분석할 수 없다면 '-배기'로 써야 한다. '뚝배기'의 경우 분석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배기'를 쓰고 '곶빼기'는 분석 가능하므로 '-빼기'를 사용한다.

낱말의 형태와 관련한 맞춤법은 잘못된 발음과 관련한 오류가 많다. 또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올바른 맞춤법에 맞는 쓰기가 가능하다.

### 3.3.2.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에서 띄어쓰기의 규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6> 띄어쓰기 규정

<u>띄어쓰기 규정</u>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수를 적을 적에는 '만' 단위를 띄어 쓴다.
㉤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씀도 허용한다.
㉦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어 쓴다.

㉞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㉟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의 제5장 ‘띄어쓰기’에는 제1절 ‘조사’,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3절 ‘보조용언’,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 제시된 띄어쓰기와 관련된 학습 내용도 앞서 지적한 ‘낱말의 형태’와 같이 체계적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단원의 길잡이를 비롯한 교과서에 수록된 띄어쓰기와 관련한 예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단원의 길잡이

①될수 있는대로/될 수 있는 대로

②하고물으니까/하고 물으니까

아저씨는한참이나/아저씨는 한참이나

나와같네/나와 같네

그럼가서 어머니한테알려야지/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단원의 길잡이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한글 맞춤법의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의 적용과 ‘낱말은 띄어 쓰되, 조사는 붙여 쓴다.’라는 규정에 해당하는 예문을 들고 있다. 또한 의존 명사를 띄어 쓰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①은 의존명사 ‘수’와 ‘대로’를 띄어 쓰는 것과 관련한 예문이다. 그리고 ②의 경우에 ‘하다’와 ‘묻다’는 각각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고, ‘-는’과 ‘-이나’, ‘-와’, ‘-한테’ 등은 하나의 낱말이지만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그런데 띄어쓰기의 경우에는 품사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3학년 1학기의 맞춤법 단원 이전에는 품사를 배우지 않는다. 따라서 단어의 갈래를 명확히 인지하고 나서 맞춤법의 원리에 접근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다음은 소단원 (1)맞춤법의 기능에 제시된 띄어쓰기의 예들이다.

(1)맞춤법의 기능

①세살배기/세 살배기  
 ②그러면안돼요/그러면 안 돼요  
 ③열살난어린이입니다/열 살 난 어린이입니다  
 ④이사온지얼마나됐지요?/이사 온 지 얼마나 됐지요?  
 ⑤공사중이니돌아가주십시오/공사 중이니 돌아가 주십시오  
 ⑥떡볶이대학 김밥과/떡볶이 대학 김밥과  
 ⑦전구간매표기/전 구간 매표기  
 ⑧우리의노래가이그늘진땅에햇별한춤될수있다면/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별 한 춤 될 수 있다면

소단원 (1)맞춤법의 기능에 제시된 예문에 나타난 것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의 규정이다.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의 예문도 찾아 볼 수 있다. 단원의 길잡이에 제시된 예문이 나타내는 맞춤법 규정과 같은 항목의 예문도 다루어지고 있다. ①의 경우 나이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

사 ‘살’은 띄어 쓰며, ‘-배기’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쓴다. ②에서 ‘안’은 부사 ‘아니’의 준말이다. 그러므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③에서 나이를 세는 단위의 의존명사 ‘살’은 띄어 쓰고, ‘난’은 ‘나다’를 기본형으로 하는 어간 ‘나-’에 어미 ‘ㄴ’이 붙음 말이므로 띄어 쓴다. 그리고 ‘-입니다’는 서술격조사 ‘-이다’이므로 체언에 붙여 쓰는 것이다. ④에서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⑤에서 ‘중’은 의존명사이다. 따라서 앞의 ‘공사’와 띄어 쓰는 것이 옳다. ‘중이니’에서 ‘-이-’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돌아가 주십시오.’에서 ‘돌아가’는 본용언이고 ‘주십시오’는 보조 용언에 해당된다. 규정에 의하면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⑥에서는 성명 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는 규정에 적용된다. ⑦에서 ‘전’, ‘구간’, ‘매표기’ 각각은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⑧에서는 각 낱말은 띄어 쓰며 조사는 붙여 쓴다. 그리고 의존명사는 띄어 쓰고 관형사도 띄어 써야 함을 보여 주는 예이다.

다음은 활동2에 제시된 문제이다. 소리 내어 읽어 보면서 띄어쓰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소리 내어 읽어 보면 바로 읽혀지기 어렵다. 이는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기초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띄어쓰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⑨영국에선14세기까지만해도한해를여름,겨울로만나누었다.봄은16세기부터,가을은14세기부터쓰이기시작한말이라고한다.그래서여름과겨울사이의늦더위에관한이름이많다.‘작은여름’,‘주저하는여름’등.

미국에서는늦가을에여름과같은날씨가잠깐찾아오는데이를‘인디언서머’라고부른다.이말은,비록늦가을이지만사냥하기에꼭좋은날씨여서,인디언들이이를신의선물로감사히여기는데서비롯되었다고한다.

-----

영국에선 14세기까지만 해도 한 해를 여름, 겨울로만 나누었다. 봄은 16세기부터, 가을은 14세기부터 쓰이기 시작한 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 사이의 늦더위에 관한 이름이 많다. ‘작은 여름’, ‘주저하는 여름’ 등.

미국에서는 늦가을에 여름과 같은 날씨가 잠깐 찾아오는데 이를 ‘인디언 서머’라고 부른다. 이 말은, 비록 늦가을이지만 사냥하기에 꼭 좋은 날씨여서, 인디언들이 이를 신의 선물로 감사히 여기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소단원 (2)맞춤법에 맞게 쓰기에 제시된 띄어쓰기와 관련한 예들이다.

(2)맞춤법에 맞게 쓰기

- ①헤쳐나갈수/헤쳐 나갈 수
- ②더큰 효과/더 큰 효과
- ③입학할때/입학할 때
- ④공부하지않고/공부하지 않고
- ⑤몇리입니까?/몇 리입니까?
- ⑥못할이유/못할 이유
- ⑦갈길이야바쁘지만/갈 길이야 바쁘지만
- ⑧떠내려가버렸다/떠내려가 버렸다

①에서는 각각의 낱말은 띄어 쓰고, 의존 명사인 ‘수’도 띄어 써야 한다. ②의 ‘더’는 부사이므로 띄어 쓴다. ③의 ‘때’는 명사이므로 따로 써야 한다. ④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다’와 ‘않다’는 각각의 낱말이기 때문에 띄어 쓴다. ⑤의 경우 ‘리’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입니까’는 서술격조사 ‘이다’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⑥의 경우에

도 ‘못하다’와 ‘이유’는 각각의 낱말이므로 띄어 쓴다. ⑦의 ‘갈’은 어간 ‘가-’에 어미 ‘ㄴ’이 붙은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그리고 ‘-이야’는 조사이므로 앞 말에 붙여 쓴다. ⑧도 마찬가지로 ‘떠내려가다’와 ‘버렸다’는 각각의 낱말이므로 띄어 쓰도록 한다.

다음은 보충·심화 학습에 제시된 띄어쓰기의 예들이다.

보충·심화

- ①차한대/차 한 대
- ②연필한자루/연필 한 자루
- ③신세결레/신 세 결레
- ④삼백 십억 삼만 이천 칠백/삼백십억 삼만 이천칠백
- ⑤239억3654만2912/239억 3654만 2912
- ⑥책상, 결상등이 있다/책상, 결상 등이 있다
- ⑦청군대백군/청군 대 백군
- ⑧첫번째/첫 번째
- ⑨먹을만하다/먹을 만하다
- ⑩사랑을 할거야/사랑을 할 거야
- ⑪해결할 사람은 그밖에 없다/해결할 사람은 그 밖에 없다
- ⑫있음직한이야기/있음 직한 이야기

①, ②, ③에서 ‘한’, ‘세’ 등은 관형사이고 ‘대’, ‘자루’, ‘결레’ 등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적어야 한다. ④의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삼백십억 삼만 이천칠백’으로 적어야 하며, ⑤는 ‘239억 3654만 2912’로 적어야 한다. ⑥의 ‘등’과 ⑦의 ‘대’는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이므로 띄어 쓰

는 것이 원칙이다. ⑧의 ‘첫’은 관형사이고 ‘번’은 차례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띄어 쓴다. 그리고 ‘째’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쓴다. ⑨에서 ‘떡다’는 동사이고 ‘만하다’는 의존 명사 ‘만’에 ‘하다’가 붙은 형태이므로 ‘떡다’와 ‘만하다’는 띄어 써야 한다. ⑩의 ‘할거야’의 경우는 ‘하-’의 어간에 어미 ‘ㄹ’이 붙은 형태이고 ‘거’는 의존 명사이며 ‘야’는 조사이다. 따라서 ‘할 거야’라고 써야 맞는 표기이다. ⑪에서 각 낱말은 띄어 쓰고 조사는 붙여 쓴다. ‘그’는 관형사이므로 띄어 쓰고 ‘밖’은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을 의미하는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조사 ‘에’는 붙여 쓴다. ⑫에서도 각 낱말은 띄어 쓰고 조사는 붙여 쓴다. 여기서 ‘직하다’는 용언이나 ‘이다’ 뒤에서 ‘-ㄱ/음 직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내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지금까지 ‘2.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내의 띄어쓰기를 살펴보았다.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 ‘5.품사의 종류’는 맞춤법 학습에 관련을 맺고 있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단어의 특성과 분류는 띄어쓰기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문장성분의 개념도 맞춤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다. 시기적으로 맞춤법보다 늦게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띄어쓰기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품사의 개념을 확실히 먼저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품사의 개념을 학습하지 않은 채 띄어쓰기 규정을 학습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명확한 원리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 3.3.3.문장부호

한글 맞춤법에서 ‘문장 부호’는 부록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마

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이음표’, ‘드러냄표’, ‘안드러냄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온점, 물음표, 느낌표, 반점, 가운데점, 쌍점,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줄임표 등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 다른 문장부호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장부호를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7> 문장부호의 종류

맞춤법 규정에서 다루는 문장부호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장부호
①마침표: 온점(.), 고리점(。), 물음표(?), 느낌표(!) ②쉼표: 반점(.), 모점(、), 가운데점(·), 쌍점(:), 빗금(/) ③따옴표: 큰따옴표(“”), 겹낫표(『』), (“), 작은따옴표(“), 낫표(「」) ④묶음표: 소괄호(()), 중괄호( {} ), 대괄호([]) ⑤이음표: 줄표(-), 붙임표(-), 물결표(~) ⑥드러냄표: 드러냄표(°;’) ⑦안드러냄표: 숨김표(xx, OO), 빠짐표(□), 줄임표(……)	①마침표: 온점(.), 물음표(?), 느낌표(!) ②쉼표: 반점(.), 가운데점(·), 쌍점(:) ③따옴표: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④안드러냄표: 줄임표(……)

그러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장부호와 관련한 예들을 찾아보자.

단원의 길잡이

- ① “그래 좋다”라고 말했다./“그래, 좋다.”라고 말했다.
- ② 아 나와같네. 그럼가서/“아, 나와 같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어머니한테 알려야지.”

①의 경우에는 반점과 온점이 들어가야 맞다. 그리고 ②의 경우에는 큰따옴표와 반점, 온점이 들어가야 한다.

다음은 소단원 (1)맞춤법의 기능에 제시된 문장부호의 예들이다.

(1)맞춤법의 기능

저기요

말씀하세요

나는 내심 그녀의 찬사를 기대했다

저기요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오는데

허억 이럴 수가

호호 농담이에요 농담 풀잎 하나로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죠

-----

“저기요…….”

“말씀하세요.”

나는 내심 그녀의 찬사를 기대했다.

“저기요,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오는데…….”

‘허억, 이럴 수가!’

“호호, 농담이에요, 농담. 풀잎 하나로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죠?”

위의 예문에서는 문장부호를 넣지 않고 학습자가 스스로 넣어 보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는 주로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쓰임을 구별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온점과 물음표와 느낌표 등의 마침표의 적용과 반점과 말줄임표에 대한 쓰임이 제시되고 있다. 위에 제시된 문장부호들은 쓰임이 많은 것들을 중심으로 실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을 주로 다루었다.

다음은 소단원 (2)맞춤법에 맞게 쓰기에 문장부호와 관련한 예들이다.

(2)맞춤법에 맞게 쓰기

①그 불빛엔 잠들지 않았으니 아프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구, 이거 이 밤중에 미안해서

“아 누가 아니래요?”

“선생님, 빨리요 빨리.”

온 마을 사람이 모두 모인 생일 파티

제가 박사님 아들입니다

“저두요”

“아니, 이 사람들이”

-----

그 불빛엔 ‘잠들지 않았으니, 아프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구, 이거 이 밤중에 미안해서.”

“아, 누가 아니래요?”

“선생님, 빨리요! 빨리.”

온 마을 사람이 모두 모인 생일 파티.

“제가 박사님 아들입니다.”

“저두요.”

“아니, 이 사람들이…….”

②한 건이라고요 대체 당신 월급이 얼마지 알거나 합니까 아무리 첫날이라도  
그 령지 그래 매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아니 낚싯바늘 하나 사러 온 사람에게 그 많은 걸 팔았던 말입니까

아뇨 사실은 부인 심부름으로 백화점에 들른 고객이었습니다 식품 매장이  
어 디냐고 묻다가 저한테 걸려들었죠

-----  
“한 건이라고요? 대체 당신 월급이 얼마지 알거나 합니까? 아무리 첫날이  
라도 그렇지. 그래, 매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아니, 낚싯바늘 하나 사러 온 사람에게 그 많은 걸 팔았던 말입니까?”

“아뇨. 사실은 부인 심부름으로 백화점에 들른 고객이었습니다. 식품 매장이  
어디냐고 묻다가 저한테 걸려들었죠.”

③“평양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평양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④기울어 가는 국운. 청년 세대에 임무./기울어 가는 국운, 청년 세대에 임  
무,

①은 작은따옴표와 큰따옴표, 반점, 온점, 느낌표와 줄임표 등의 쓰임  
에 관한 것이다. ②는 큰따옴표와 물음표, 반점, 온점 등에 관한 것이  
다. ③은 물음표의 쓰임에 관한 것이고 ④는 반점의 쓰임과 관련되었다.  
다음은 보충·심화 학습에 제시된 문장부호와 관련한 예들이다.

보충·심화 학습

①그래.

“으악?”

“정호야, 괜찮아.”

-----

“그래.”

“으악!”

“정호야, 괜찮아?”

보충·심화 학습에서는 글을 제시한 후 문장부호가 잘못된 곳을 세 군데를 찾도록 하고 있다. 문장부호가 잘못됨에 따라 글의 내용이 우스꽝스러워지는 현상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는 큰따옴표, 물음표와 느낌표, 온점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다.

맞춤법은 원고지 사용과 관련하여 지도 할 수 있다. 낱말의 형태, 띄어쓰기, 문장부호를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원고지와 관련하여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교수님의한말씀한마디가명하니안자있는우리의가슴으로나라와꼬쳤다  
문장을대할때에는쉽표하나마침표하나소홀이하지마라

이	어	지	는	교	수	님	의	한	말	씀	,	한	마	디
가	명	하	니	안	자	있	는	우	리	의	가	슴	으	로
날	아	와	꼬	쳤	다	.								



해당하는 27명의 학생들이 ‘높은 편이다’, 59.5%에 해당하는 104명의 학생들이 ‘보통이다’, 25%에 해당하는 44명의 학생들이 ‘낮은 편이다’라고 답하였다. 이 응답은 자신의 국어과목의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1.국어과목의 성적은 어느 정도에 속합니까?	①높은 편이다	②보통이다	③낮은 편이다	합 계
	27명	104명	44명	175명
	15.5%	59.5%	25%	100%

다음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기 위해 ‘자신은 한글 맞춤법에 맞는 글쓰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까?’, ‘주변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하였다. 전자의 물음에 27%에 해당하는 47명의 학생들이 ‘그런 편이다’, 57%에 해당하는 100명의 학생들이 ‘보통이다’, 16%에 해당하는 28명의 학생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답하였다. 후자의 물음에 26%에 해당하는 46명의 학생들이 ‘자주 있다’, 62%에 해당하는 108명의 학생들이 ‘가끔 있다’, 3.4%에 해당하는 6명의 학생들이 ‘없다’, 8.6%에 해당하는 15명의 학생들이 ‘모르겠다’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하여 응답자 중 80% 이상의 학생들은 비교적 맞춤법에 맞는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맞춤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한글 맞춤법에 맞는 글쓰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까?	①그런 편이다	②보통이다	③신경쓰지 않는다	합 계
	47명	100명	28명	175명
	27%	57%	16%	100%

3.주변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①자주 있다	②가끔 있다	③없다	④모르겠다	합 계
	46명	108명	6명	15명	175명
	26%	62%	3.4%	8.6%	100%

맞춤법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맞춤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의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26.9%에 해당하는 47명의 학생들이 ‘어렵지 않다’고 하였으며, 72.6%에 해당하는 127명의 학생들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어렵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다른 문항의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이유를 말하기 귀찮아서 ‘어렵지 않다’라는 답을 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4.맞춤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어렵지 않다	②어렵다	어려운 이유	합 계
	47명	127명	맞춤법을 잘 몰라서(105명)	175명 (무응답1명)
	26.9%	72.6%	통신언어 때문에(18명) 기타(2명)	100%

성적이 좋은 학생의 경우에도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맞춤법이 ‘어려운 이유’로는 주로 ‘맞춤법을 잘 몰라서 생활화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 하였다. 그리고 통신 언어로 인해 일상 언어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타의 이유로 광고 등 매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언어들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맞춤법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은 어느 정도 있으나 국어과 교육에서 맞춤법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여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준의 적용이 단순하지 않아서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통신언

어 등의 영향도 그 원인으로 찾을 수 있다.

수업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는 ‘국어과목 수업에서 모듈별 수업을 합니까?’라는 질문과 ‘국어과목 수업에 멀티미디어 자료가 자주 제시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66.9%에 해당하는 117명의 학생들이 ‘가끔 한다’, 33.1%에 해당하는 58명의 학생들이 ‘거의 하지 않는다’로 답하였다. 그리고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72%에 해당하는 126명의 학생들이 ‘가끔 그렇다’, 28%에 해당하는 49명의 학생들이 ‘거의 하지 않는다’로 답하였다. 두 질문 모두 항상 한다는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5.국어과목 수업에서 모듈별 수업을 합니까?	①항상 한다	②가끔 한다	③거의 하지 않는다	합 계
	.	117명	58명	175명
	.	66.9%	33.1%	100%

6.국어과목 수업에 멀티미디어 자료가 자주 제시되고 있습니까?	①항상 한다	②가끔 한다	③거의 하지 않는다	합 계
	.	126명	49명	175명
	.	72%	28%	100%

국어과 수업에서 모듈별 학습이나 멀티미디어 자료를 가끔 이용한다는 답과 더불어 거의 하지 않는다는 대답도 1/3정도로 보아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수업 방식으로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맞춤형 학습의 경우, 국어지식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지식 전달을 쉽게 할 수 있는 교사 중심의 교수 방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4.1 낱말의 형태

낱말의 형태와 관련된 질문은 2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에 적용되는 문항들이다. 1번의 ‘늘어지다’와 2번의 ‘들어가다’는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그러나 3번의 ‘드러나다’는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므로 밝혀 적지 않는다. 4번은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라 해도 원형을 밝혀 ‘오’로 적어야 한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1	늘어지다 (정답)	161명(66%)
	느러지다	14명(8%)
2	들어가다 (정답)	166명(95%)
	드러가다	9명(5%)
3	(진실이)들어나다	23명(13%)
	(진실이)드러나다 (정답)	152명(87%)
4	이것은 책이요.	81명(46%)
	이것은 책이오. (정답)	94명(54%)

1번 문항 66%, 2번 문항 95%, 3번 문항 87%의 결과와 같이 응답자들은 두 개의 용언이 한 개의 용언을 이룰 때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비교적 잘 구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준에 의한 적용보다는 습관에 의한 적용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4번 문항의 경우 ‘요’와 ‘오’의 표기에 오류를 보이는 응답자가 무려 46%에 달하고 있다. 학생들은 발음대로 표기하는 경향에 의해 구별 없이 섞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들이다. 5번 ‘얼음’과 6번 ‘만듦’의 경

우에 어간에 ‘-음/-口’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7번 ‘굳이’도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었으므로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나 8번 ‘귀머거리’는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5	어름	5명(3%)
	얼음 (정답)	170명(97%)
6	만듬	107명(61%)
	만들 (정답)	68명(39%)
7	굳이	14명(8%)
	굳이 (정답)	161명(92%)
8	귀머어리	35명(20%)
	귀머거리 (정답)	140명(80%)

5번, 7번, 8번의 문항에는 각각 97%, 92%, 80%의 응답자가 옳은 답을 하였다. 그러나 결과에서 보듯이 6번 문항에서 61%의 응답자가 잘못 답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원칙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써 온 것을 답으로 골랐음을 보여준다.

다음의 9번 ‘살살이’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이므로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나 10번의 ‘끄트머리’와 같이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9	살살이 (정답)	161명(92%)
	살사치	14명(8%)

10	끄트머리 (정답)	98명(56%)
	끝머리	77명(44%)

9번의 경우 92%의 응답자들이 옳은 답을 했으나 10번의 경우 56%만이 정답을 하였다. 이것은 응답자들은 9번과 10번 문항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명사 뒤에 ‘이’가 붙는 경우와 ‘이’ 이외의 경우를 생각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류이다.

다음의 11번 ‘넓적하다’는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그러나 12번 ‘얇팍하다’의 경우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소리대로 적는다. 그런데 11번과 12번의 경우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여 답한 경우가 많았다. 즉 ‘넓적하다’와 같이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얇팍하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39%에 달했다. 이것은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13번 ‘웃기다’는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기-’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므로 어간을 밝혀 적어야 한다. 14번 ‘부딪치다’도 접미사 ‘-치-’가 붙어 이루어졌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응답자들은 접미사가 붙은 말의 원형을 밝혀 적는 원칙을 비교적 잘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번 ‘홀쭉이’와 16번 ‘배불뚝이’는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므로 그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교과서의 ‘오뚝이’와 같은 예이므로 응답자들의 97%, 92%가 잘 구분, 적용하였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11	넙적하다	37명(21%)
	넓적하다 (정답)	138명(79%)

12	알팍하다 (정답)	107명(61%)
	얹팍하다	68명(39%)
13	웃기다 (정답)	170명(97%)
	우끼다	5명(3%)
14	부딘히다	47명(27%)
	부딕치다 (정답)	128명(73%)
15	홀쭉기	5명(3%)
	홀쭉이 (정답)	170명(97%)
16	배블뚝이 (정답)	161명(92%)
	배블뚜기	14명(8%)

다음으로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에 해당하는 문항들이다.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껌꽃이’, ‘싫증’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17번 ‘며칠’의 경우에는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부리나케’가 여기에 해당한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17	며칠 (정답)	65명(37%)
	몇일	110명(63%)

17번 문항의 63%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몇일’을 옳다고 선택하였다. 학생들은 대부분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도 ‘며칠’의 원형이 ‘몇일’이라고 착각한데서 비롯된 오류이다. 구체적인 맞춤법 규정에 대한 학습의 부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18번 ‘이튿날’은 끝소리가 ‘ㄹ’인 말과 다른 말이 어울릴 때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므로 ‘ㄷ’으로 적는 것이다. ‘반진고리’, ‘술가

락’ 등이 여기에 속하는 예이다.

19번 ‘나룻배’와 20번 ‘모깃불’은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침으로 넣어 적는다. 학생들은 사이시옷 규정에 대해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18	이튿날	10명(6%)
	이튿날 (정답)	165명(94%)
19	나루배	5명(3%)
	나룻배 (정답)	170명(97%)
20	모기불	24명(14%)
	모깃불 (정답)	151명(86%)

다음은 준말의 표기에 관한 것이다. 21번 ‘간편케’는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ㄱ’이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되므로 거센소리로 적어야 한다. 그런데 23번 ‘생각건대’와 같이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줄어드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어야 한다. ‘넉넉지’와 ‘섭섭지’의 경우와 같다. 22번 ‘만만찮다’는 어미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되는 경우와 같다. ‘적잖은’이 그 예이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21	간편케	131명(71%)
	간편케 (정답)	44명(25%)
22	만만찮다 (정답)	152명(87%)
	만만잖다	23명(13%)
23	생각건대 (정답)	44명(25%)
	생각컨대	131명(71%)

21번의 ‘간편케’와 23번의 ‘생각건대’에 관한 질문에서 각각 25%, 25%의 응답자만이 정답을 골랐다. 22번의 ‘만만찮다’의 경우에는 87%의 응답자가 옳은 답을 한 것과 대조를 보이는 결과이다. 학생들은 어느 경우에 거센소리로 적어야 하는지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는지에 관해 혼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 규정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그래서 24번 ‘소홀히’와 25번 ‘솔직히’는 ‘-히’로 적어야 옳다. 이 경우 다수의 응답자가 잘 분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24	소홀이	44명(25%)
	소홀히 (정답)	131명(75%)
25	솔직이	10명(6%)
	솔직히 (정답)	165명(94%)

#### 4.2. 띄어쓰기

띄어쓰기와 관련한 질문은 2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1, 2, 3번의 경우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규정과 관련한 문제들이다. 즉 ‘-부터’, ‘-처럼’, ‘-입니다’는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그런데 1번 문항은 48%의 응답자만이 정답을 골랐다. 2번과 3번의 문항은 각각 70%와 75%가 정답을 골랐지만 다른 항목들에 비해 높은 비율은 아니다. 즉 조사를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은 알고 있다고 해도 조사의 다양한 종류를 알지 못한데서 오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1	꽃에서 부터	94명(52%)
	꽃에서부터 (정답)	84명(48%)

2	바람 처럼	52명(30%)
	바람처럼 (정답)	123명(70%)
3	학생입니다 (정답)	131명(75%)
	학생 입니다	44명(25%)

다음은 의존 명사에 대한 규정에 해당하는 문항들이다. 즉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한다. 여기서 ‘만큼’, ‘지’, ‘바’ 등은 의존 명사에 해당한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4	먹을 만큼 먹어라 (정답)	98명(56%)
	먹을만큼 먹어라	77명(44%)
5	그가 떠난지가 오래다	77명(44%)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정답)	98명(56%)
6	네가 뜻한바를 알겠다	40명(23%)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정답)	135명(77%)

응답자들이 잘 구별하지 못하는 항목이 의존명사와 관련된 띄어쓰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의존명사는 조사의 형태와 의미가 비슷하여 구별이 쉽지 않다. 의존명사인지 조사인지를 구별하려면 앞 말을 살펴보아야 한다. 앞에 오는 말이 관형어이면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하고, 체언이면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다음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의 띄어쓰기에 관련된 문항이다. ‘마리’, ‘채’, ‘컬레’, ‘자루’ 등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7번, 8번, 9번, 10번 각각 90%, 75%, 80, 92% 등이 정답을 골랐다. 응답자들은 비교적 단위를 띄어 쓴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위의 종류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에 붙여 쓰는 경우가 있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7	소 한마리	17명(10%)
	소 한 마리 (정답)	158명(90%)
8	집 한채	44명(25%)
	집 한 채 (정답)	131명(75%)
9	신 두 켄레 (정답)	140명(80%)
	신 두켄레	35명(20%)
10	연필 한자루	14명(8%)
	연필 한 자루 (정답)	161명(92%)

다음의 ‘내지’, ‘대’, ‘등’ 등은 열거하는 말들이다. 열거하는 말은 띄어 쓰는 것이 옳다. 11번과 12번의 경우 80%와 92%의 응답자들이 옳은 답을 하였으나 13번 ‘등’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76%만이 옳은 답을 하였다. 학생들은 ‘등’을 ‘열거하는 말’의 의미로 파악하기보다는 조사처럼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11	열 내지 스물 (정답)	140명(80%)
	열내지 스물	35명(20%)
12	청군대 백군	14명(8%)
	청군 대 백군 (정답)	161명(92%)
13	사과, 배, 귤 등이 있다 (정답)	133명(76%)
	사과, 배, 귤등이 있다	42명(24%)

다음은 보조 용언에 대한 규정에 해당한다.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런데 다음의 14, 15번 문항의 경우와 같이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는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써야 한다. 14번 85%, 15번 90%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를 잘 구별하였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14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정답)	149명(85%)
	강물에 떠내려가버렸다	26명(15%)
15	책을 읽어도보고	17명(10%)
	책을 읽어도 보고 (정답)	158명(90%)
16	잘난 체를 한다 (정답)	114명(65%)
	잘난체를 한다	61명(35%)

16번의 ‘체’는 의존명사이다. 따라서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처럼 붙여 쓰는 경우가 35%에 달했다.

다음은 고유 명사에 관한 규정과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즉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 ‘최치원 선생’, ‘홍길동씨’가 옳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17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답)	116명(66%)
	충무공 이순신장군	59명(34%)
18	최치원 선생 (정답)	128명(73%)
	최치원선생	47명(27%)
19	홍길동 씨 (정답)	68명(39%)
	홍길동씨	107명(61%)

17번 66%, 18번 73% 등으로 다른 문항보다 정답의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다. 또한 19번의 경우는 39%만이 정답을 골랐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고유 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20번 질문은 숫자에 관한 띄어쓰기이다. 즉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는 규정과 관련된 질문이다.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써야 한다. 이 문항은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띄어쓰기를 해 보도록 하였다. 정답 이외의 답은 함께 묶었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20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정답)	91명(52%)
	오류	84명(48%)

48%의 응답자들은 만 단위로 띄어 쓴다는 규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임에도 학생들에게는 잘 학습되지 못했다. 52%의 정답을 한 응답자들은 학습 성과가 높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명확한 개념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4.3.문장부호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장부호를 중심으로 6문항을 질문하였다. 질문은 모두 주관식으로 응답자가 직접 문장부호를 찍도록 하였다. 여기서도 정답 이외의 모든 답은 오류로 함께 처리하였다.

다음의 1번은 마침표 가운데 물음표에 대한 질문이다. 여기서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를 모두 정답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둘 다 가능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물음표를 표기한 것은 모두 정답 처리 하였다. 98%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물음표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었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1	“이름이 뭐지?” (정답)	172명(98%)
	오류	3명(2%)

다음은 쉽표 가운데 반점에 대한 질문이다. 여기에서는 도치된 문장이므로 반점을 찍어야 한다. 그리고 온점과 큰따옴표를 해야 한다. 듣는 상대가 있는 발화이므로 큰따옴표가 알맞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2	“이리 오세요, 어머니.” (정답)	73명(42%)
	오류	102명(58%)

2번 문항에서는 큰따옴표 대신에 작은따옴표를 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리 오세요’ 다음에 반점 대신 온점을 찍은 경우도 많았다. 이것은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쓰임을 잘 알지 못해 혼동함을 보여주고, 온점과 반점을 사용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함에서 비롯한다. 58%의 응답자가 오류를 범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은 느낌표의 사용에 관한 질문이다. 느낌을 힘차게 나타내기 위해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 어미 다음에 써야 한다. 그리고 반점과 큰따옴표를 찍어야 한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3	“아, 달이 밝구나!” (정답)	94명(54%)
	오류	81명(46%)

3번은 46%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오류를 보였다. 여기서는 ‘아’ 다음에 반점 대신 느낌표를 찍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반점을 쓰지 않거나 ‘밝구나’ 다음에 느낌표를 하지 않고 온점을 찍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느낌표가 마침표에 포함되어 종결어미 뒤에 써야 한다는 개념이 부족하여 문장 중간에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문장 첫머리의 접속이나 연결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반점을 쓴다’는 반점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여기서는 온점도 찍어야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4	첫째, 몸이 튼튼해야 한다. (정답)	114명(65%)
	오류	61명(35%)

65%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온점과 반점을 잘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35%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온점의 쓰임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었으나 반점을 찍어야 하는지 찍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따옴표에 관한 질문이다. 즉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큰따옴표를 써야 한다. 이와 함께 온점도 알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5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 라고 하였다.	14명(8%)
	오류	161명(92%)

5번 문항에서는 큰따옴표를 ‘예로부터’부터 찍은 예가 많았다. 즉 응답자들은 인용한 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문장 처음부터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큰따옴표 대신 작은따옴표를 사용하거나 아예 찍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리하여 92%라는 많은 응답자들이 인용문에서의 문장부호 사용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안드러냄표 가운데 줄임표에 관한 질문이다. 즉 할 말을 줄일 때 사용한다. 줄임표를 쓰고 온점을 찍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대화문이므로 큰따옴표를 써야 한다.

문항		응답자수 (백분율%)
6	“어디 나하고 한 번…….” (정답)	98명(56%)
	오류	77명(44%)

6번 문항에서는 따옴표의 사용을 하지 않은 것과 말줄임표 대신 느낌표를 사용한 것이 많았다. 특히 말줄임표를 사용한 다음 온점을 찍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 이것은 마침표의 개념을 간과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4.4.문제점

지금까지 맞춤법의 실태를 조사하고 항목별로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법 학습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어과 내에서 맞춤법 학습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맞춤법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춤법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심 결여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맞춤법 학습에 대해 체계적이지 못한 점을 말할 수 있다. 맞춤법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품사의 개념과 문장 성분의 역할 등을 이해한 다음에 학습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교과서의 과정은 체계적이지 못하여 품사에 관한 학습이 맞춤법보다 나중에 배치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에는 학습자들이 품사 개념을 모르고 있으므로 품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쪽으로 지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사는 띄어 쓴다’라는 것을 지도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학습 현장에서의 맞춤법 교육은 교사 중심의 강의식 교수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 중심의 교수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맞춤법을 비롯한 국어 지식 영역 전반에 걸친 학습 내용을 지루하고 재미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왔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학습한 단원을 바탕으로 설문한 결과임에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항목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여 탐구활동을 통해 지식을 터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학습자와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탐구활동의 과정을 더욱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탐구학습 모형과 ‘상호작용’이라는 협동학습 모형의 혼합모형을 적용한 지도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을 ‘이론’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고 ‘체득’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게 되는 것이다.

## 5. 혼합모형에 따른 맞춤법 지도 방안

### 5.1. 학습지도안 제시

맞춤법 실태 조사를 참고하여 탐구학습과 협동학습의 혼합모형을 활용한 본시의 학습지도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 유발, 호기심 자극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조 자료로 이용하여 제시하였다.<sup>8)</sup>

---

8) 에듀넷 [www.edunet4u.net](http://www.edunet4u.net) 의 그림을 이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의 단원은 총 6차시로 설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낱말의 형태와 관련한 부분은 주로 1차시에 설정되어 있으며,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는 2차시와 3차시에 걸쳐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4~6차시는 맞춤법에 대한 실제 적용과 응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낱말의 형태와 관련하여 1/6차시,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2/6차시, 문장부호와 관련하여 3/6차시의 학습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5.1.1. 낱말의 형태

전체 단계는 도입, 전개, 평가, 보상, 차시 예고 등으로 구성하였다.

1단계 도입에서는 인사와 출결 사항을 확인하고, 전시 학습에 관한 간단한 질문 등으로 내용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본시 학습의 주제 및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끌만한 그림 자료를 제시한다. 그림 속에는 맞춤법이 잘못된 문장이 제시되고 학생들은 잘못된 것을 찾아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모둠을 구성해야 한다. 모듬은 6명씩 구성한다. 그리고 미리 어떤 범위를 정해서 모듬의 이름을 모듬원이 상의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시인의 이름, 꽃 이름, 연예인 이름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모듬 구성원에게 역할을 배정한다. 요약자, 확인자, 조사자, 실행자, 기록자, 후원자, 관찰자 등의 역할을 말한다. 구성원이 6명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역할의 이름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원활한 학생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모듬의 이름과 역할이 정해졌다면 모듬과 역할이 표기된 이름표를 달도록 한다. 이름표를 다는 것은 소속

감과 책임감을 주는 의미가 있다.

모둠에 관한 것이 정리되었으면 보상에 관한 안내를 한다. 보상은 모둠별 보상과 개인별 보상 두 가지를 제시한다. 모둠별 보상이 없다면 학생들은 협동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별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무임승차 할 수 있다. 이것을 모두 보완하기 위해 모둠별 보상과 개인별 보상을 하기로 한다. 점수를 추가로 주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단계 전개에서는 ‘단원의 길잡이’를 함께 읽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교과서의 ‘떡볶이’ 그림을 보고 학생이 고민하는 것을 발표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탐구 활동을 시작한다. 먼저 모둠별로 문제지를 나누어 준다. 문제지에는 낱말의 형태와 관련한 맞춤법에 어긋난 예가 제시되어 있다. 문제지 외에 듣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교사가 미리 잘못된 읽기를 녹음해 올 수 있다. 이제 학생들은 모둠별로 탐구 활동을 시작한다. 역할 분담을 한 만큼 문제지를 나누어서 탐구할 수 있다. 모둠원이 각각 탐구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도록 한다. 이런 과정은 수업 전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탐구 활동이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탐구 활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갖도록 한다. 전 시간에 ‘주변의 잘못된 간판 조사하기’를 과제로 내 주었다. 모둠별로 문제지와 함께 탐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탐구 활동을 마쳤다면 모둠별로 탐구 활동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모둠원의 과제도 함께 발표하도록 한다.

3단계 평가에서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5~10문항의 형성평가를 통해서 개인별 문제를 풀도록 한다. 이때 개인별 점수와 함



		<p>여 모듬 이름을 정하도록 한다.</p> <p>-각 모듬 구성원들에게 역할을 배정한다.</p> <p>-보상에 관한 안내를 한다.</p>	<p>짓기</p> <p>이름표</p> <p>패용</p>		
전개 (2단계)	<p>·맞춤법: 소리를 글자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약속</p> <p>·맞춤법의 기능: 글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고 편리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p> <p>·모듬 탐구 활동하기</p>	<p>◎단원의 길잡이를 함께 읽도록 한다.</p> <p>◎단원의 길잡이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p> <p>◎‘떡볶이’ 그림을 보고 학생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발표하도록 한다.</p> <p>◎모듬별로 문제지를 나누어 주고 맞춤법에 어긋난 예를 제시한다. 모듬별로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p> <p>◎전 시간 과제(주변의 간판 조사하기)를 자료로 함께 이용할 수 있다.</p> <p>-‘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일부를 맞춤법이 어긋난 표기로 읽으면서 불편한 사항을 적어보도록 한다.</p> <p>-맞춤법이 어긋난 그림을 보여준다.</p>	<p>학생</p> <p>읽기</p> <p>학생</p> <p>발표</p> <p>모듬</p> <p>탐구</p> <p>활동</p>	<p>교재</p> <p>p29</p> <p>PPT자료 및</p> <p>문제지</p>	28분
전개					

		-잘못된 발음을 들려준다. ◎각 모둠을 돌아다니며 탐구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모둠별로 탐구활동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재를 풀어보고 발표	듣기자료  모둠 발표	
평가 (3단계)	·학습내용정리 ·형성평가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형성평가 풀이	개인별 문제를 풀고 모둠별 평균을 낸다.	PPT 평가지	7분
보상 (4단계)	· 모둠의 보상 · 개인의 보상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모둠을 시상한다. ◎점수가 가장 높은 개인을 시상한다.			3분
차시 예고		◎차시를 예고한다. (띄어쓰기)		PPT	2분

### 5.1.2. 띄어쓰기

전체 구성은 도입, 전개, 평가, 보상, 차시 예고 등으로 앞서 제시한 과정과 같다. 그리고 도입 단계에서의 모둠 구성도 동일하다. 띄어쓰기

와 관련한 그림 자료를 보여 주고 동기 유발을 한다.

2단계 전개에서는 띄어쓰기와 관련한 문제지를 나누어 주고 탐구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이때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불편한 점을 적어보도록 한다. 모둠별로 잘못된 곳을 찾아보고 탐구 활동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3단계 평가에서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형성평가를 통해 개인별, 모둠별 평가를 하여 4단계 보상을 한다.

마지막으로 차시를 예고한다. 차시 내용은 문장부호와 관련한 것으로 문장부호가 빠진 문제지를 먼저 제시하여 채워 올 수 있도록 과제를 준다.

<표9> 학습지도안의 예2

교수 모형	혼합모형 (탐구학습 + 협동학습)	대단원	2.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소단원	(1) 맞춤법의 기능	차시
		교수-학습활동				
단계	학습 내용	교사		학생	자료 및 유의점	비고
도입 (1단계)	·인사, 출결 확인 ·전시학습 내용 상기	◎날말의 형태와 관련한 맞춤법 표기에 대해 예시와 함께 간단한 질문과 정리를 한다.		학생 발표	PPT	5분
도입 (1단계)	·학습주제 및 학습 목표 제시 및 학습 동기 유발 ·모둠 구성하기	◎동기 유발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의 그림을 제시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PPT	

		<p>◎모둠 나누기</p> <p>-6명씩 모둠을 구성하여 모둠 이름을 정하도록 한다.</p> <p>-각 모둠 구성원들에게 역할을 배정한다.</p> <p>-보상에 관한 안내를 한다.</p>	<p>모둠 이름 짓기</p> <p>이름표 패용</p>		
전개 (2단계)	<p>·띄어쓰기의 필요성을 안다.</p> <p>·모둠 탐구 활동하기</p>	<p>◎모둠별로 문제지를 나누어 주고 띄어쓰기가 잘못된 예를 제시한다. 모둠별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도록 한다.</p> <p>-띄어쓰기가 잘못된 그림을 보여준다.</p> <p>-띄어쓰기가 잘못된 글을 제시한다.</p> <p>◎띄어쓰기가 잘못되어 불편한 사항을 적도록 한다.</p> <p>◎각 모둠을 돌아다니며 탐구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p> <p>◎탐구 활동 내용을 모둠별로 발표하도록 한다.</p>	<p>모둠 탐구 활동</p> <p>모둠 발표</p>	PPT자료 및 문제지	28분

평가 (3단계)	·학습내용정리 ·형성평가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형성평가 풀이	개인별 문제를 풀고 모둠별 평가를 낸다.	PPT 평가지	7분
보상 (4단계)	· 모둠의 보상 · 개인의 보상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모둠을 시상한다. ◎점수가 가장 높은 개인 을 시상한다.			3분
차시 예고		◎차시를 예고한다. (문장 부호)		PPT	2분

### 5.1.3.문장부호

전체 구성은 도입, 전개, 평가, 보상, 차시 예고 등으로 앞서 제시한 과정과 같다. 그리고 도입 단계에서의 모둠 구성도 동일하다. 우선 문장 부호와 관련한 그림 자료를 보여 주고 동기 유발을 한다.

2단계 전개에서는 띄어쓰기와 관련한 문제지를 나누어 주고 탐구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이때 문장부호가 빠져 있거나 잘못되어 불편한 점을 적어보도록 한다. 모둠별로 잘못된 곳을 찾아보고 탐구 활동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3단계 평가에서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형성평가를 통해 개인별, 모둠별 평가를 하여 4단계 보상을 한다. 마지막으로 차시를 예고한다.



		<p>-문장부호가 빠진 글을 제시하여 넣어 보도록 한다.</p> <p>-문장부호가 빠져있어 불편한 사항을 적도록 한다.</p> <p>◎각 모둠을 돌아다니며 탐구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p> <p>◎탐구 활동 내용을 모둠별로 발표하도록 한다.</p>	모둠 발표	PPT자료 및 문제지	28분
평가 (3단계)	<p>·학습내용정리</p> <p>·형성평가</p>	<p>◎문장부호의 쓰임을 표현한 그림을 보여준다.</p> <p>◎학습 내용을 정리한다.</p> <p>◎형성평가 풀이</p>	개인별 문제를 풀고 모둠별 평균을 낸다.	PPT 평가지	7분
보상 (4단계)	<p>· 모둠의 보상</p> <p>· 개인의 보상</p>	<p>◎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모둠을 시상한다.</p> <p>◎점수가 가장 높은 개인을 시상한다.</p>			3분
차시 예고		<p>◎차시를 예고한다.</p> <p>((2)맞춤법에 맞게 쓰기)</p>		PPT	2분

## 6. 결론

지금까지 한글 맞춤법에 관한 지도 방안을 연구하였다. 중학교 3학년 학생 175명을 대상으로 맞춤법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이미 맞춤법에 대해 학습한 후였음에도 맞춤법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국어과 내에서 맞춤법 학습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과 맞춤법 학습에 대해 체계적이지 못한 점, 그리고 학습 현장에서의 맞춤법 교육은 교사 중심의 강의식 교수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맞춤법 학습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맞춤법에 맞는 글쓰기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별도로 맞춤법이라는 단원을 다루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맞춤법은 홀로 다룰 때보다 다른 영역과 함께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맞춤법을 문법의 복잡한 어느 부류로 인식하기보다는 생활 속 글쓰기에서 함께 하는 것으로 친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맞춤법 학습에 품사와 문장 성분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품사와 문장 성분의 학습이 먼저 이루어지면 낱말의 형태와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의 학습에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품사와 문장 성분의 개념을 활용하여 맞춤법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 이것은 탐구학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 획득에 관한 절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수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탐구학습 모형과 ‘상호작용’이라는 협동

학습 모형의 혼합모형을 적용한 지도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식을 ‘이론’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고 ‘체득’할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여 탐구활동을 통해 지식을 터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학습자와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탐구활동의 과정을 더욱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즉 탐구학습 모형과 협동학습 모형을 혼합한 모형을 적용하였다. 협동학습 모형 가운데 성취 과제 분담 학습 모형을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낱말의 형태, 띄어쓰기, 문장부호와 관련하여 각각 1차시분의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6명의 구성원으로 모둠을 정해주고 모둠 내의 상호 작용을 통한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안하였다. 협동학습의 기본 틀을 갖추어 상호작용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효과적인 맞춤법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 편주의주의에 빠져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간과한다면 ‘한글을 잘 모르는 국민’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 잡는 일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기본자료

- 교육부(2000), 『국어과 교육 과정』, 대한교과서.
- \_\_\_\_\_ (2005), 『중학교 생활국어』 1-2, 대한교과서.
- \_\_\_\_\_ (2005), 『중학교 생활국어』 2-1, 대한교과서.
- \_\_\_\_\_ (2005), 『중학교 생활국어』 2-2, 대한교과서.
- \_\_\_\_\_ (2005), 『중학교 생활국어』 3-1, 대한교과서.
- \_\_\_\_\_ (2005), 『중학교 생활국어』 3-2, 대한교과서.
- \_\_\_\_\_ (2005),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 대한교과서.
- \_\_\_\_\_ (2005),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I』, 대한교과서.
- \_\_\_\_\_ (2005),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3-1, 대한교과서.
- \_\_\_\_\_ (1988),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

### 2.단행본

- 김광해(1997),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출판부.
- \_\_\_\_\_ 외(1999), 『국어 지식 탐구』, 박이정.
- 민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역락.
- \_\_\_\_\_ (2000), 『국어교육을 위한 응용 국어학 연구』, 서울대출판부.
- \_\_\_\_\_ (2002), 『한국인의 국어 능력 실태』, 새국어생활 국립 국어 연구원.
- 최영환(2003), 『국어 교육학의 지향』, 삼지원.
- 최창렬 외(2004), 『국어과 교수법』, 역락.
- 허재영(2006), 『국어과 교육의 이해와 탐색』, 박이정.
- 박인우 외 공역(2004), David W. Johnson · Frank P. Johnson, 『협동학습을 위한 참여적 학습자』, 아카데미프레스.

박인우 외 공역(2005), Bruce Joyce · Marsha Weil · Emily Calhoun,  
『교수모형』, 아카데미프레스.

박승배 외 공역(2006), Gary D. Borich, 『효과적인 교수법』, 아카데미프레스.

### 3. 논문

강수진(2001), 「한글 맞춤법의 교수·학습 방법」,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강혜원(2002),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 교육대학원.

곽덕신(1999), 「한글 맞춤법의 문제점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1998), 「국어 맞춤법 지도 방안 연구- 중학교 1,2,3학년 국어교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김유정(2000), 「한글 맞춤법 인지 실태 분석과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전남대 교육대학원.

김정경(2004), 「중학생을 위한 맞춤법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 교육대학원.

김태준(1997), 「한글 맞춤법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예외 및 허용 규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김효진(2004), 「중학교 3학년 국어지식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박문제(2001), 「한글맞춤법 교육 내용 선정」,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선영(2002),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탐구학

습과 협동학습의 혼합모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부용균(1997), 「한글 맞춤법의 사용실태와 지도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 교육대학원.

양지연(2004), 「통신 언어자료를 이용한 맞춤법 지도방안 :중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교육대학원.

이은희(2005), 「중학교 생활국어 교과서 맞춤법 관련 단원의 지도 내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 교육대학원.

이주영(1998), 「중등학교에서의 맞춤법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이해조(2001), 「중등학교 정서법 지도에 관한 일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 교육대학원.

정범순(1999), 「중학생의 맞춤법 오용실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 교육대학원.

정혜정(2003), 「국어 지식 영역의 맞춤법 지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 교육대학원.

최경화(1991), 「중학생의 맞춤법 표기 분석을 통한 지도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한수진(2004), 「한글 맞춤법 지도 방안 연구 :9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제대 교육대학원.

홍현선(2002), 「중학생의 작문에 나타난 맞춤법 오류에 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교육대학원.

에듀넷 [www.edunet4u.net](http://www.edunet4u.net)

<Abstract>

**A study on a plan for guiding the rules of spelling by a mixed model of inquiry learning and cooperative learning**

**Kim, Hee Sun**

**Dep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With middle school students as its subject this study explored how they actually knew the rules of spelling, examined the problems, and sought a concrete guidance plan for solving them. For that, it presented a specific learning guidance plan so that effective orthography education can be provided through a mixed model of cooperative learning and inquiry learning.

A concrete process of the mixed model is presented as follows. First, STAD(Student Teams Achievement Division) in a model of cooperative learning consists of ①guidance for a teacher's class ②group activity ③a stage of evaluation and ④a procedure such as compensation for group performance. A model of inquiry learning consists of ①confirmation of learning objective ②presentation of learning material ③inquiry activity ④a procedure such as application and generalization of a result. The

mixed model can be said to graft ③inquiry activity of the second model into ②group activity of the first model.

I can point out some problems about learning the rules of spelling based on the results from a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s after 175 middle school students in Grade 3 learnt the rules.

First, the department of the Korean language does not place great weight on learning the rules. Secondly, the students do not learn them systematically. Thirdly, most of orthography education in learning fields is provided in a lecture-style teaching method centering on a teacher.

The plans for overcoming th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great weight should be placed on learning the rules, which means enabling students to recognize the necessity for compo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Secondly, students should learn the parts of speech and sentential components before they learn the rules. Thirdly, a teacher needs to make various attempts at a teaching method. This thesis applied a method of guidance with the application of a mixed model of inquiry learning model oriented in the 7th curriculum and cooperative learning model called 'interaction'. The method enables students not to confine their knowledge to 'a theory' but to 'obtain it by experience' through positive inquiry. And it can provoke their interests and learning motives, stimulate their curiosity, and increase efficiency in learning having them

recognize problems by themselves and acquire knowledge through inquiry activity. Besides, using the interactions between learners, between learners and a teacher will more complement the activity.

## 설문지

본 설문지는 '탐구학습과 협동학습의 혼합모형에 의한 중학교 맞춤법 지도 방안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되었습니다. 설문지의 응답은 연구의 기초 자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희선

응답자 : ( )중학교 3학년 이름( ) 성별 (남/여)

\*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시오.

1. 국어과목의 성적은 어느 정도에 속합니까?  
①높은 편이다 ②보통이다 ③낮은 편이다
2. 자신은 한글 맞춤법에 맞는 글쓰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까?  
①그런 편이다 ②보통이다 ③신경 쓰지 않는다
3. 주변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①자주 있다 ②가끔 있다 ③없다 ④모르겠다
4. 맞춤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어렵지 않다 ②어렵다(이유: )
5. 국어과목 수업에서 모듈별(조별) 수업을 합니까?  
①항상 한다 ②가끔 한다 ③거의 하지 않는다
6. 국어과목 수업에 멀티미디어 자료가 자주 제시되고 있습니까?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렇다 ③거의 하지 않는다

\* 다음에 문장부호를 넣어 보세요.

1. 이름이 뭐지
2. 이리 오세요 어머니
3. 아 달이 밝구나
4. 첫째 몸이 튼튼해야 한다
5.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 라고 하였다
6. 제발 한 번만

\* 다음 중 올바른 것에 √표를 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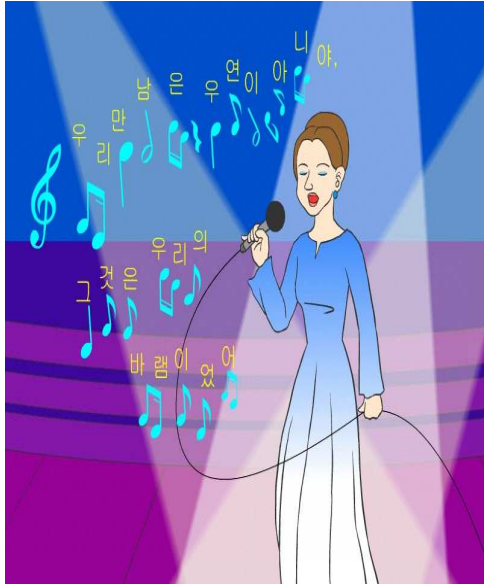
- |               |            |
|---------------|------------|
| 1. ①늘어지다      | ②느러지다      |
| 2. ①들어가다      | ②드러가다      |
| 3. ①(진실이)들어나다 | ②(진실이)드러나다 |
| 4. ①이것은 책이요.  | ②이것은 책이오.  |
| 5. ①어름        | ②얼음        |
| 6. ①만듬        | ②만듬        |
| 7. ①긋이        | ②굳이        |
| 8. ①귀떡어리      | ②귀머거리      |
| 9. ①살살이       | ②살사치       |
| 10. ①끄트머리     | ②끝으머리      |
| 11. ①넙적하다     | ②넓적하다      |
| 12. ①알팍하다     | ②얕팍하다      |
| 13. ①웃기다      | ②우끼다       |
| 14. ①부딪히다     | ②부딪치다      |
| 15. ①홀쭉기      | ②홀쭉이       |
| 16. ①배불뚝이     | ②배불뚜기      |
| 17. ①며칠       | ②몇일        |
| 18. ①이튿날      | ②이튿날       |
| 19. ①나루배      | ②나룻배       |
| 20. ①모기불      | ②모깃불       |
| 21. ①간편케      | ②간편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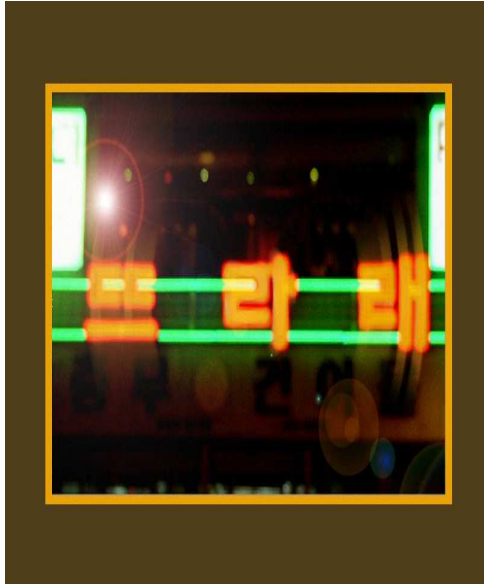
- |           |       |
|-----------|-------|
| 22. ①만만찮다 | ②만만잡다 |
| 23. ①생각건대 | ②생각컨대 |
| 24. ①소홀이  | ②소홀히  |
| 25. ①솔직이  | ②솔직히  |

\* 다음은 띄어쓰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바른 것에 √표를 하시오.

- |  |                |
|--|----------------|
| 1. ①꽃에서 부터   | ②꽃에서부터         |
| 2. ①바람 처럼  | ②바람처럼          |
| 3. ①학생입니다  | ②학생 입니다        |
| 4. ①먹을 만큼 먹어라                                      | ②먹을만큼 먹어라      |
| 5. ①그가 떠난지가 오래다                                    | ②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
| 6. ①네가 뜻한바를 알겠다                                    | ②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
| 7. ①소 한마리  | ②소 한 마리        |
| 8. ①집 한채   | ②집 한 채         |
| 9. ①신 두 켄레   | ②신 두켄레         |
| 10. ①연필 한자루  | ②연필 한 자루       |
| 11. ①열 내지 스물                                       | ②열내지 스물        |
| 12. ①청군대 백군  | ②청군 대 백군       |
| 13. ①사과, 배, 귤 등이 있다                                | ②사과, 배, 귤등이 있다 |
| 14. ①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 ②강물에 떠내려가버렸다   |
| 15. ①책을 읽어도보고                                      | ②책을 읽어도 보고     |
| 16. ①잘난 체를 한다                                      | ②잘난체를 한다       |
| 17. ①충무공 이순신 장군                                    | ②충무공 이순신장군     |
| 18. ①최치원 선생  | ②최치원선생         |
| 19. ①홍길동 씨   | ②홍길동씨          |
| 20. ‘십이억삼천사백오십육만칠천팔백구십팔’을 띄어쓰기를 해야 할 부분에 √ 표시 하시오. |                |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깍두기 - 꼭두각시, 깍지**  
**쓰쓸하다 - 딱따구리, 싹쓸하다**



비율, 실패율  
 규율 / 선율  
 전율, 백분율

명중률  
 합격률  
 성공률





아버지가방에 들어가신다.



점점 살찌는 아주머니의 딸이 있습니다.



설악산, 계룡산, 지리산은 국립공원이다.

<같은 자격의 어구 반복>

,

반점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

<바로 다음의 말을 꾸이지 않음>

문방사우: 붓, 먹, 벼루, 종이  
<내포되는 종류들을 쓸 때>

마침표: 문장이 끝남을 나타낸다.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

**쌍점**

정약용: 목민심서, 경세유표  
<저자와 저서명을 적을 때>

<둘 이상을 대비할 때>

침착해야 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니?  
인용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지?  
마음 속에서 한 말

작은따옴표  
강조

여러분! 필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 『했지』

「배부른 돼지」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 『』  
낫표, 겹낫표

달이 밝기도 하구나!  
<감탄>

어서 말을 해!  
<명령>

!  
느낌표

춘향아!  
<부름>

예, 도련님!  
<놀람>

이게 누구냐!  
<놀람>